Entertainment p/18

재회커플 '케미' 살아있네…

metro®

메트로 2014년 7월 21일 월요일 제3018호 www.metroseoul.co.kr

굿바이 '약수고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동호로 약수고가차도에서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약수고가 철거 시민 걷기 행사'가 열리고 있다. 1984년 12월 설치된 약수고가는 이날부터 철거 작업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현대·기아차 잘나가는 이유 있네…

1988년 수입차 개방후에도 내수점유율 70~80%
단산 차종 부품기업 '현대파텍스' 설립 A/S 심혈

1988년 국내 수입차시장이 완전 개방된 이후 수입차의 공세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현대차와 기아차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70~80%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현대기아차가 지속적으로 사랑 받는 비결에는 다른 기업이 따라오기 힘든 사후 관리 시스템이 있다.

현대차 그룹이 단산 차종 부품 전문기업인 '현대파텍스'를 설립한 것은 2005년 11월.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초기 자본금 400억원의 56%, 31%, 13%를 각각 분담해 2006년 3월 충남 서산에 공장을 착공했고 2007년 3월부터 시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현대파텍스가 현대·기아차의 단산 차종 부품을 생산하면서 현대차와 기아차는 완성차 생산에 전념하는 토대를 만들었다.

17일 찾은 현대파텍스 공장은 겉으로 보기에 여느 양산차 공장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면 각종 금형설비가 수북이 쌓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014년 7월 현재 현대파텍스가 보유한 금형은 현대차 2902조, 기아차 1936조 등 총 4838조에 이른다. 올해에는 현대 아반떼(HD)와 1세대 제네시스(BH), 기아 카니발(VQ) 등의 금형이 추가됐고, 8월부터 기아 쏘렌토 후속이 양산되면 쏘렌토R(XM) 부품도 생산된다.

국내 소비자기본법은 단종 후 8년 간 제작사가 부품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년이 지나면 공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대신 완성차공장에서 단산차종 부품을 생산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현대차그룹은 현대파텍스를 설립함으로써 현대차와 기아차의 부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현대파텍스 관계자는 "단산차종 부품은 사실상 무기한 책임진다는 자세로 일하고 있어 70년대 양산된 포니 차체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양산된 부품은 현대모비스 아산물류센터로 이관된다. 이 센터에서 총 196개 차종, 201만개 부품이 오고간다. 양산차종 부품이 40%, 단산차종 부품이 60%로 단산차종 부품 비중이 더 많다.

수많은 부품이 취급되므로 매우 혼란스러울 것 같지만 물류센터 내부는 상당히 정돈돼 있다. 이는 'W.O.S'(Warehouse Optimization System)라 불리는 '창고최적화시스템' 덕분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해 창고 규모를 산정하고 모니터링을 한 후, 시뮬레이션을 거쳐 작업지시와 물동량 산정을 한다.

모비스 관계자는 "실물바코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물류센터 현장에서 실적처리, 재고확인, 현물 추적 등이 실시간으로 관리된다"면서 "덕분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부품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은 누적 양산차종 증가에 맞춰 올해 중으로 현대파텍스 부지에 금형보관장을 착공할 예정이다. 이것이 완공되면 야적돼 있는 단산차종 금형 보관이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

/임의택기자 ferrari5@metroseoul.co.kr

"짝퉁 부품이라니…"

작년 야탑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지난해 7월 39명의 인명 피해를 낸 분당선 야탑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수리과정에서 감속기와 모터를 연결하는 피니언기어를 짝퉁 부품으로 교체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는 20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에스컬레이터 보수정비업체 이사 정모(41)씨와 한국철도공사 분당건축팀 선임설비장 임모(4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 분당건축팀 팀장 강모(42)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정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속적으로 감속기 윤활유인 오일이 새 피니언기어 마모현상을 발생시켜 노후 감속기 교체가 해결책임을 알고도 신속히 감속기를 바꾸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7월에는 야탑역 에스컬레이터 이상소음 고장 접수를 받고 점검하면서 피니언기어를 강도가 떨어지는 짝퉁 부품으로 교체했다.

임씨는 보수업체가 에스컬레이터를 점검수리할 때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데다 정씨로부터 감속기 교체를 건의받고도 예산문제로 상급자인 강씨에게 보고하지 않아 사고를 초래한 혐의다.

/김민준기자 mjkim@

더 알찬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에서 확인하세요

택시 이용 투표참여 캠페인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열흘 앞둔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역 앞에서 수원시팔달구선관위 관계자들이 택시에 '투표 참여' 깃발을 꽂아주며 투표 참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연간 부동산 양도소득 탈루액 20조

국세청 실거래가 56조… 신고는 43조원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매매 후, 국세청에 양도가액을 축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 연간 20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0일 펴낸 '2013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토지·건물 등 과세 대상 부동산 36만4982건의 양도가액 신고액은 43조7814억원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추적한 결과, 총액은 12조3742억원 많은 56조1556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매매가 축소 신고는 물론 거래 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것들이 포함됐다.

이 기간 과세미달 거래 11만3948건의 경우, 양도가액 신고금액은 6조639억원이었지만 국세청의 확인 결과 14조24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신고된 금액에 비해 8조1784억원이나 많은 것이다. 과세미달 거래의 대부분은 부동산이다.

과세 대상과 과세미달 대상 부동산을 합치면 2012년 한해에 부동산 거래자들이 실제 매매액에 비해 20조5526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축소 또는 미신고했다.

매매가 축소신고는 양도 대상 부동산의 취득가액 신고에서도 나타났다. 2012년의 경우 과세대상과 미달 부동산의 취득가액 미신고·축소신고액은 15조6793억원에 달했다. 2011년에도 17조5896억원, 2010년에는 13조9416억원이었다.

/김태균기자 ksgit@metroseoul.co.kr

새누리 당직 개편 재보선 이후… "탕평인사"

새누리당 후속 당직 인선은 다음달이나 돼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김무성 대표는 전당대회 후 일단 기존 지도부로 7·30 재보선을 치르고 인사 밑그림을 그린다는 방침을 정했다. 당 관계자는 20일 "김 대표는 재보선을 치르기 전까지는 인사는 아예 생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며 "아직 구체적인 인물을 놓고 고민하는 상황이 아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인사 원칙 5가지를 이미 정해놨다.

첫째는 재보선 이후에 '원샷'으로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주류·비주류를 구분하지 않는 탕평인사를 하겠다는 원칙이다. 또 당 혁신의 비전을 인사로 구체화하는 것이고, 청와대와 소통할 수 있는 인사를 당직에 포진시킨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인사는 당내 지도부와 상의한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독자 노선을 걸을 것이라는 '친박 주류'측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친박 인사 기용에도 무게를 둘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정기자

방한한 포르투갈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을 공식방문한 아니발 카바코 실바 포르투갈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으로 이동하고 있다. 포르투갈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연합뉴스

최양희 장관 '호프 간담회'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9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근 한 호프집에서 예비창업가 학생 및 연구원들과 건배를 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여야 지도부 수도권 화력 집중

7·30 공식 선거운동 첫 휴일… 후보자 지원사격

여야는 7·30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 후 첫 휴일인 20일 수도권 총력전에 나섰다.

재·보선이 실시되는 15곳 중 서울 동작을을 포함해 수도권에 6석(수원 을·병·정, 김포, 평택을)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동작을 나경원 후보의 공약 발표장에 참석한 데 이어 서울 사당시장, 수원 팔달구 매산시장·수원역 로데오거리·역전시장을 잇따라 방문해 나 후보와 김용남(수원병, 팔달) 후보 지원에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후 수원역에서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와 수도권 후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필승전진 결의대회'를 열었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를 보면 격전지인 수도권과 충청권(3곳)에서 여당 후보들이 다소 선전하는 것으로 나왔지만 현재로서는 판세를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조현정기자 jhj@

뉴스&뉴스

심상정 "야권연대 더 이상 거론 안 해"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7·30 재·보궐선거 야권 연대 문제에 대해 "당대당 협의 제안을 새정치연합이 거부했다"며 "더는 야권 연대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20일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21일 투표용지가 인쇄되는데, 인쇄 후 후보 단일화를 하면 표가 4~5% 날라간다.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 국방부 연내 핫라인 설치

●한중 양국이 연내에 국방부 간 핫라인을 설치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 소식통은 20일 "한·중 국방부가 지난해 말부터 협의에 들어가 최근 의견 접근을 이뤘다"며 "22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4차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 이 문제가 매듭지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헬기 사고 순직 소방관 5명에 훈장

●광주 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소방관 5명에게 훈장이 추서됐다.

소방방재청은 19일 정성철(52) 소방령에게 녹조근정 훈장, 박인돈(50) 소방경, 안병국(39) 소방위, 신영룡(42) 소방장, 이은교(31) 소방교에게 옥조근정 훈장을 각각 추서했다.

김정은 "AG 참가해 남북 화해 이바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를 통해 남북간 화해와 단합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조선 올림픽위원회는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남조선 인천에서 진행되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우리 선수단을 보내기로 결정했다"며 "김정은 동지께서 대회에 참가할 국가종합팀 남자축구 검열경기를 지도했다"고 전했다.

김 제1위원장은 경기를 마치고 선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체육인들이 경기대회에 참가해 숭고한 체육 정신과 민족의 기개, 고상한 경기도덕품성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겨레의 화해와 단합, 세계 여러 나라와의 친선과 평화를 도모하는 데 적극 이바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정기자

"광역버스 입석금지 유보"

정부의 광역버스 입석 금지 제도에 대해 새누리당 일부에서 일단 유보한 후 제도 보완책을 마련, 재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하태경 의원과 새누리당 조동원 홍보기획본부장은 20일 "광역버스 입석 금지 시행 이후 교통 혼란이 발생해 국민 불편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며 "국토부가 시행 전 관련 대책을 준비했어야 했는데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또 "혼란을 야기한 국토부는 공식적으로 국민에게 사과하고 입석금지 제도를 유보해야 한다"며 "새 보완책을 충분히 준비한 다음 불편이 없도록 이후에 재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현정기자

‘세월호 제 2아픔’ 겪는 진도

기름 유출 피해·관광객 발길도 뚝… 두 달간 피해액 900억

세월호 참사로 진도를 찾는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기는 등 진도가 ‘제2의 아픔’을 겪고 있다.

진도군 범군민대책본부위원회는 20일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4월16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관광객 감소와 어업 소득 감소에 따른 피해액이 898억33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관광소득은 2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수입 232억원에 비해 무려 203억원이 줄었다. 관광객 수도 지난해 4~5월 11만1627명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 4~5월에는 2만3255명으로 80% 이상 줄었다.

업종별로 보면 택시의 경우 지난해 하루 평균 12만원의 수입을 올리다 올해는 5만원으로 떨어져 5억 400만원 가량 손실을 봤다. 노래방 등 유흥업소의 현금 매출도 3분의 2가량 줄었다.

어업 분야도 각종 어류와 해산물 판매로 지난해 4~6월 말 225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올해는 156억원에 그쳤다.

침몰한 세월호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양식장을 덮치면서 발생한 피해도 300억 원을 넘어섰다. 이 기름 유출 피해는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어서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는 최근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진도군민 피해보상 및 지원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대책위는 “직접적 피해는 너무 심각하고 상당수의 어업인과 영세 소상공인,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가 막막할 정도로 절박한 실정”이라며 “세월호 관련 특별법 제정시 진도군민의 직·간접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케이블 웨이크보드 ‘짜릿’ 20일 강원도 속초 청초호에서 열린 ‘2014 동해 케이블 웨이크보드 챔피언십’에 참여한 워터보드 동호인들이 관람객들을 위해 멋진 묘기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초중고 편입학, 주소 안 옮겨도 가능

“지나친 규제 완화 차원”… 부정입학 논란일듯

앞으로 초중고 학생이 제적·자퇴·퇴학 등으로 학업을 중단했다가 편입학하게 될 경우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강남 8학군’ 등으로의 위장전입을 허용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20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학교 입학 시기를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은 입학시기를 ‘학년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해 해당 시기를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하는 등 학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학교 입학 시기를 제한해 발생하는 학업 단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또 거주지를 이전 하지 않아도 편입학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전학은 종전과 같이 거주지를 이전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재학 당시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도 거주지를 이전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 때문에 다시 이사를 갔다 돌아와야 하는 등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에 이를 완화하겠다는 차원”이라며 “각 시도교육청에서 규제 완화로인한 부정입학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할 예정이라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민준기자

구로, ‘진로테마 콘서트’

서울시 구로구가 지난 19일 ‘개그우먼 박지선과 함께하는 진로테마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진행된 행사에서 박씨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개그우먼의 길을 선택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솔한 이야기를 전했다.

‘어린이 레저카누 체험교실’

서울시 강동구가 오는 8월 4일부터 7일까지 ‘2014 어린이 레저카누 체험교실’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카누 교실은 하루 2회 미사리 조정경기장에서 진행되며 회차별로 25명씩 총 20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스트레스 관리법’ 강연

서울시 송파구가 19일 글마루도서관에서 ‘윤대현 교수의 최신 스트레스 관리기법’ 강연회를 실시했다. 서울대병원 강남센터의 윤대현 교수는 이날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현대인들에게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번아웃증후군’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국회의사당 앞 싱크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국회대로에서 싱크홀이 연달아 발견됐다. 왼쪽은 6월 19일에, 오른쪽은 7월17일에 발견된 싱크홀. /서울시 제공

송파 이어 국회 앞에도 ‘싱크홀’

한달 사이 무려 3곳 발견… 서울시 진상조사 나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의문의 ‘싱크홀’이 잇따라 발견됐다.

서울시는 20일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 국회대로에서 한 달 사이에 두 차례나 싱크홀이 발견돼 원인 규명에 나섰다고 밝혔다.

첫 번째 구덩이는 6월19일 한 운전자 신고로 확인됐다. 구멍 난 아스팔트를 걷어보니 그 아래에서 가로 3m, 세로 3m, 높이 4m짜리 구덩이가 발견됐다. 강서도로사업소는 하수박스 등 지하 구조물들을 조사했으나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한 달이 지난 17일 또다시 가로 1m, 세로 1m, 깊이 1.5m짜리 구덩이가 발견됐다. 첫 구덩이에서 약 2m 떨어진 지점이다.

도심에서 나타나는 싱크홀은 파손된 상수관, 하수관, 빗물 연결관에서 흘러나온 물이 주변에 있던 흙과 함께 흘러가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는 특별한 원인이 나오지 않자 메트로 9호선을 조사대상에 포함해 추가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앞서 제2롯데월드 공사장 주변인 송파구 잠실운동장 인근 백제고분로에서도 싱크홀이 발견된 바 있다. /김민준기자

‘소·돼지 수의사’ 양성

소·돼지·닭 등 산업동물을 전문으로 다루는 수의사를 위한 전문 교육기관이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20일 서울대는 지난달 평창캠퍼스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에 산업동물임상교육연수원을 개소했다고 밝혔다.

연수원은 국내 10개 수의과대학 학생들을 상대로 산업동물 임상교육을 하고, 기존 수의사에 대한 재교육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산업동물 전문 수의사로 양성하는 역할을 한다. 본격적인 연수는 내년부터 진행한다. /조현정기자 jhj@

내일의 과학자들 20일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제주항공우주박물관에서 열린 ‘2014 제주 로봇 엑스포’에 참가한 학생들이 자신들이 만든 로봇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서울시가 19일부터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를 운영한다.

행사는 이날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여의도한강공원(물빛무대)과 어린이대공원(분수대광장)등에서 열린다.

서울에 있는 초·중·고교 소속 동아리, 청소년시설 소속 동아리 등 약 90여 팀과 개인·가족과 시민 등 약 1만여 명이 참가한다. 프로그램은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리며 청소년 동아리 발표와 전시·체험 프로그램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공연은 뮤지컬·그룹사운드·B-boy 등의 음악 공연과 풍물·농악·탈춤·사물놀이·민속놀이 등의 전통문화체험, 한지공예·천연염색·네일아트 등 전시회 프로그램, 초청 공연 등이 준비돼 있다.

행사는 24세 이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관람 및 참여 가능하다. /조현정기자

한국어시험 치르는 외국인 20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어능력검정시험(TOPIK)에서 한 응시자가 시험지를 살펴보고 있다. 토픽은 이번 시험부터 기존 초·중·고급 3종에서 초급 수준의 토픽Ⅰ과 중·고급의 토픽Ⅱ 등 2종으로 개편됐다. /연합뉴스

연세로 '보행전용' 거리로

대중교통 통행도 제한 계획… 일부 시민 반대 진통 예상

서울시가 올해 1월부터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운영 중인 신촌 연세로를 보행전용거리로 전환해 보행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신촌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조성 이후 방문 시민이 증가하고 곳곳에서 거리 공연이 열리는 등 성공적이었다"며 "이를 토대로 문제점과 보완책을 분석해 앞으로는 보행자만 다닐 수 있는 보행전용거리로 만들어달라"고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

'보행친화도시 조성'은 박 시장이 1기 시정부터 꾸준히 추진해온 핵심 사업 중 하나이기도 하다.

현재 신촌 지하철역에서 연세대 정문에 이르는 연세로 550m 구간은 보행자와 자전거, 16인승 이상 승합차, 긴급차량만 통행할 수 있다. 대중교통전용지구 왕복 2차선은 버스 등 모든 차량이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해 시속 30㎞ 이하로 통행해야 하는 '존 30(zone 30)' 체제로 운영된다. 일반 차량은 진입이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더해 연세로를 대중교통 차량 등도 지나다닐 수 없는 완전한 보행전용거리로 조성하려는 것이다. 다만 연세로를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할 당시에도 시민의 의견을 모으는 데 1년 반 이상이 걸렸던 점을 고려하면 보행전용지구로 조성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과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인들은 거리가 깨끗해져 좋아하는 사람도 있긴 했지만 반대 의견이 더 많았고, 보행자들은 찬성하는 사람이 다소 많아 의견을 모아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9시 등교안' 어떻게 되나 교육감협의회 23일 첫 총회

새로 취임한 교육감들이 오는 23일 서울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연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은 이날 오후 3시 양재동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첫 임시총회를 열고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을 선출과 다양한 현안을 논의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9시 등교안' 등도 논의된다. /조현정기자 jhj@

"부모도 장애아 낙태 권리 없다"

장애를 지닌 태아라고 하더라도 부모에게 낙태할 권리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제1민사부는 '병원 측이 진료와 검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장애아를 낙태하지 못했다'며 모 대학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낸 A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장애가 있는 첫째 아이를 기르던 중 2005년 7월 태어난 둘째 아이마저 아무런 이상이 없다던 병원 검사결과와 달리 지적장애 1급 판정을 받자 2012년 말 '장애아인 것을 알았더라면 아이를 낳지 않았을 것인데 병원 측 과실로 장애아를 낳고 키우게 됐다'며 앞으로 20년간 매달 100만원씩 2억4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병원 측이 장애아로 태어날 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A씨의 추가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민준기자

中 대학생 50명 한류 체험

성신여대(총장 심화진)는 중국 대학생 50명이 3주에 걸쳐 한국어 교육과 문화를 집중적으로 체험하는 기회를 갖는다고 20일 밝혔다.

하북과학기술대학교 학생 41명과 산동청년정치대학 9명은 지난 14일~8월4일 22일간 성신여대에서 진행되는 단기 연수에 참여한다. 하북과기대학과 산동청년정치대는 성신여대와 교류 협정을 맺은 대학으로, 2013년 9월부터 한·중 합작 전공학과를 설치, 운영 중이다.

"격추 현장접근 허용하라"

네덜란드·호주 등 여객기 피해국 러시아 정부에 압박

말레이시아 여객기 격추로 자국민을 잃은 서방 정상이 러시아 압박에 나섰다. 여객기 격추가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 반군의 소행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추락 현장을 통제하는 반군이 현장 조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된 것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호주 등 각국 정상은 러시아 정부에 여객기 추락 현장에 대한 접근 허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191명의 희생자를 낸 네덜란드의 마르크 뤼테 총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시간이 없다. 당신이 정말로 도울 생각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네덜란드 국민은 희생자의 시신이 들판에 내버려져 있는 사진을 보고 분노하고 있다"며 푸틴 대통령에게 반군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요구했다.

토니 애벗 호주 총리는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러시아를 압박하기로 했다. 캐머런 총리는 러시아가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유럽연합(EU)과 서방도 러시아에 대한 태도와 접근 방식을 바꿀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같은 날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전화를 하고 국제 조사단이 현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분리주의 반군 세력은 현장을 통제하면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등 국제 조사단의 접근을 일부만 허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신 상당수는 항공기 잔해와 승객 소지품 등과 함께 들판에 방치돼 있으며 섭씨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에 빠르게 부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락 현장에서 사망한 탑승객의 신용카드가 도난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우크라이나는 분리주의 반군 세력이 현장 증거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제적인 범죄라고 비난했다. 반면 분리주의 반군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국제 조사단의 접근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 장악 지역인 토레즈 인근 그라보보 마을 벌판에서 19일(현지시간) 구급대원들이 격추된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탑승자의 시신을 담은 비닐 자루를 트럭에 싣고 있다. /AP 연합뉴스

배트맨 주니어 등장! 19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주니어 퍼레이드' 행사에서 배트맨으로 분장한 소년이 화려한 의상과 제스처로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신화 연합뉴스

美 여자 대통령 힐러리 대신 워런?

불출마 밝혔지만 민주당 안팎 권유·압력 높아져

미국 민주당 안팎에서 엘리자베스 워런(사진) 상원의원에 대한 대선 출마 권유가 잇따르고 있다. 반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고액강연' 논란으로 대세론에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다.

USA투데이 등 미국 주요 언론은 워런 의원이 "2016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유지하고 있지만 외부의 출마 권유·압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결국은 워런 의원의 출마를 권유하거나 지지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워런 의원은 18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진보진영 단체인 풀뿌리국민행동 주최 콘퍼런스에서 지지자들로부터 공개적으로 "출마선언을 하라"는 권유를 공개적으로 받았다. 부자와 기득권 세력에 맞서 싸워나가야 한다는 주제로 연설하기 위해 워런 의원이 연단에 올라서자마자 청중들은 한동안 "출마하라, 출마하라"고 외쳐댔다. 워런 의원은 관중들을 겨우 진정시킨 뒤에야 연설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날 워런 의원은 "대형투자은행들은 미국의 평범한 가족과 미국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고 도구제금융까지 받았다"면서 "이제 그들은 금융위기로 파산위기에 몰렸던 2008년 때보다 더욱 배를 불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워런 의원은 하버드대학 법과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이다. 2012년 정계에 입문한 직후부터 '민주당 진보진영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한편 힐러리 전 국무장관은 본인에 이어 딸 첼시까지 고액 강연료를 받아 '부자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이국명기자 kmlee@

Москвичей и гостей столицы кусают серые крысы

쥐떼로 몸살 앓는 모스크바

metro Russia

상반기 132명 공격 받아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시가 사람을 공격하는 쥐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러시아위생감독국 자료에 따르면 도심 건물에 서식하는 회색 쥐의 개체수가 몇년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모스크바 시민 223명이 회색 쥐의 공격을 받았으며 올 상반기에도 132명이 공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생감독국 소속 연구원 류드밀라 루만체바는 "계속적으로 방역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회색 쥐를 박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음식물 쓰레기의 불법 투기와 방치 행각이 쥐가 번식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현 상황의 심각성을 반영해 새로운 쥐약을 개발하는 특수 실험실도 만들었다.

루만체바는 "새롭게 마련된 특수 실험실에서 회색 쥐의 습성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진행됐다"며 "쥐는 사회성이 강하고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는 동물로 호기심이 강하고 외부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매우 뛰어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쥐의 번식을 억제하더라도 모스크바에서 쥐떼를 몰아내는 데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쥐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시민이 쥐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깨끗한 도심 환경을 만드는 데 동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루슬라나 카르포바 기자·정리=조선미 기자

갓난아기 놔둔채 탁아소 퇴근?

metro France

프랑스 스트라스부르그의 한 탁아소가 아기를 둔채 문을 닫아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16일 생후 9개월 된 아이를 맡긴 여성은 탁아소 문이 닫힌걸 확인하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곧바로 소방서와 경찰에 연락한 그는 침대에서 잠자고 있는 아기를 찾는데 성공했다.

경찰이 도착한 시간은 밤 8시께이다. 해당 시설은 탁아소 운영 시간이 저녁 6시 30분까지임을 주장하며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관리의 실수가 있었다"고 밝혔다. 문을 닫기 전 마지막 관리를 맡은 여성은 모든 탁아실을 끝까지 둘러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아기 어머니는 "두 시간 동안 아기를 방치한 건 분노할만한 일이다. 그런데 담당자가 왔을때 자신은 사과할 게 없다고 말했다. 현재 고소를 생각중이며 내 딸을 다신 이 탁아소에 맡기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렐리앙 타르디유 기자

정리=정주리 인턴기자

가자지구 사망자 343명 하마스 땅굴 12개 파괴

열흘 넘게 이어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희생자가 340명을 넘어섰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19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측 사망자 수가 343명으로 늘고 부상자도 26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한 이후 사망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주요 외신은 전했다. 지난 8일부터 가자지구를 공습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17일부터 이곳에 탱크와 자주포를 갖춘 지상군을 투입했다.

가자지구에 진입한 이스라엘군은 현재 불도저 등을 동원해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로 이어지는 땅굴을 탐색, 파괴하고 있다. 이 땅굴은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위해 비밀리에 판 것으로 이스라엘은 현재까지 12개의 땅굴을 파괴했다고 밝혔다.

/조선미기자

market index <18일>

코스피 2019.42 (-1.48)

코스닥 560.26 (+1.32)

금리(국고채 3년) 2.52 (+0.01)

환율(원·달러) 1030.00 (+3.20)

뉴스&뉴스

명품 드레스 듀오웨드 모델이 20일 서울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20회 듀오웨딩페어' 개막에 앞서 명품 브랜드 웨딩 드레스를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신고 해외송금 상향 추진

●별도의 신고 없이 외국에 송금할 수 있는 외화 규모를 건당 2000 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환 은행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고, 외국에 송금할 수 있는 외화 규모를 기존 건당 1000 달러에서 2000 달러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외국환 거래 규정에 따르면 건당 1000달러 이상을 초과하는 금액을 국외로 송금할 때 외국환은행에 송금 사유와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김민지기자

대부업계, 공동상표 만들어

●중소형 영세 대부업체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공동상표를 개발하기로 했다.

20일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중소형 대부업체를 모아 공동상표를 만들기로 하고, 지난 15일 중소형 회원사 30여 곳이 참여한 가운데 설명회를 가졌다.

대부협회가 전산과 영업 안내서 등에 대한 공동상표를 개발하면 중소형 대부업체가 이를 사용하는 '프랜차이즈 본사-가맹점 영업' 구조다. /김민지기자

로또복권 제607회

1등 당첨번호	2등보너스숫자
8 14 23 36 38 39	13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 일치	3,494,480,907
2등	5개 숫자 + 2등 보너스 숫자	66,561,542
3등	5개 숫자 일치	1,608,878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학
편 집 국 장 조 민 호
광 고 문 의 02)721-9851,3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현대차, '프리미엄 브랜드' 만든다

2012년 이후 접었던 계획 극비리에 재검토
제네시스·에쿠스 호평으로 상황유리 판단

현대차가 올 4분기에 선보일 준대형 세단 AG.

현대자동차가 한동안 접었던 프리미엄 브랜드 도입을 다시 검토하고 극비리에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자동차시장은 BMW와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전통적인 프리미엄 브랜드와 토요타가 만든 렉서스, 닛산이 만든 인피니티, 혼다의 어큐라 등 신흥 프리미엄 브랜드로 구분된다. 2000년대 중반부터 세계 각지의 언론들은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 현대차가 프리미엄 브랜드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전망을 꾸준히 내놓았다. 그러나 현대차는 지난 2012년 신 브랜드 캠페인인 'Live Brilliant'를 공개하는 자리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를 안 만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익명을 요구한 현대차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현대차는 향후 수년 안에 프리미엄 브랜드를 만들어 글로벌 시장에 론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현대차가 프리미엄 브랜드 도입을 처음 고려한 것은 2009년경이다. 이 당시에 현대차는 앞서 프리미엄 브랜드를 론칭한 렉서스(토요타), 인피니티(닛산), 어큐라(혼다)의 사례를 조사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우리가 프리미엄 브랜드 시장을 조사하고 일단 유보키로 한 것은 당시의 시장 상황 때문이었다"면서 "토요타나 닛산, 혼다는 제품군이 비교적 고가에 형성되어 있어서 프리미엄 브랜드를 론칭하기에 적합한 상황이었으나, 현대차는 대형차 판매량이 많지 않아 아직 시기상조였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프리미엄 브랜드 도입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그 이후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2009년에 선보인 제네시스가 미국에서 호평을 받았고, 이어 선보인 에쿠스도 판매량이 꾸준한 상황이다. 제네시스와 에쿠스 론칭 이전에는 3만 달러 정도에 머물던 최고급 모델의 가격이 에쿠스 론칭 이후 6만 달러 정도로 올라갔다. 따라서 과거와 달리 프리미엄 브랜드 도입에 적합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현대차는 2011년 1월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새로운 생각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를 브랜드 슬로건과 '모던 프리미엄'을 브랜드 방향성으로 내세웠고, 2012년에는 브랜드 캠페인인 'Live Brilliant'를 선보인 바 있다. 최근에는 전 세계 딜러숍에 신규 딜러 시설 표준인 '글로벌 딜러십 스페이스 아이덴티티(GDSI: Global Dealership Space Identity)'를 적용해 차량 전시장과 고객 서비스 시설의 고급화를 추진할 계획을 공개했다.

/임의택기자 ferrari5@metroseoul.co.kr

이통사, 미성년 대상 부가서비스 출시

이동통신사가 수요 증가와 수익성 확보를 이유로, 미성년 대상 서비스를 속속 출시하고 있다. 미성년 요금제는 부모가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연체·미납 확률이 적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는 점, 한번 가입한 통신사를 계속 유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현상도 미성년 대상 서비스가 블루칩으로 떠오른 이유다. 그러나 성인 요금제와 큰 차이가 없는 가격경쟁력이 한계로 지적된다.

최근 SK텔레콤은 청소년 대상 음성·문자·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6종을 업계 최초로 선보였다. 18세 이하 미성년만 가입할 수 있는 이 요금제는 방과후에는 데이터 이용량을 절반만 차감한다.

KT는 데이터 부가 서비스 'LTE 메가스터디팩'과 'LTE 영웅서기팩'을 20일 출시했다. LTE 메가스터디팩은 메가스터디의 인터넷 강의를 월 5000원에 데이터 무제한으로 모바일 수강할 수 있다.

어린이 위치를 확인하는 웨어러블 통신 기기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SK텔레콤과 KT는 실시간 위치를 보호자에게 통보하는 'U-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지난 17일 선보였으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LG전자 제휴를 통해 손목 시계형 위치 확인 기기 '키즈온'을 지난 9일 출시했다. SK플래닛은 어린이집과 학부모 대상의 '니어키즈'를 운영 중이다.

다만 이들 미성년 대상 부가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한달에 최소 3000원에서 최대 1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대부분 부가세를 별도로 부과한다.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의 위험성, 3G와 LTE에 국한된 기기, 성인 대상 일반 요금제와 큰 가격 차이가 없다는 점은 향후 극복 과제다. /장윤희기자 unique@

"세계 경제 장기침체 가능성 높다"

두산 '글로벌 비즈니스 포럼'서 경제 석학 전망

"세계 경제는 수요부족으로 인한 장기침체 가능성이 높다. 수요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무엇보다 인프라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미국 재무부 장관을 지낸 로렌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린 '2014 두산 글로벌 비즈니스 포럼'에서 세계경제 전망과 관련, 이 같이 밝혔다.

또 2013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쉴러 예일대 교수는 세계경제 침체의 원인은 전쟁, 정치적 분쟁, 투기적 버블 붕괴 등 다양하지만, 근간에는 '야성적 충동이 작용하고 있다며 경제의 호황과 불황을 일으키는 것은 다름 아닌 인간의 심리라고 강조했다.

존 메이저 전 영국 총리, 로렌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 로버트 쉴러 예일대 교수를 비롯한 글로벌 리더와 석학, 글로벌 기업 CEO 등이 모여 세계 정세와 경제를 진단하고 미래 경영환경을 전망한 '2014 두산 글로벌 비즈니스 포럼'이 18일(현지시각)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2012년과 2013년에 이어 세번째다. 1회 포럼에는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김태균기자 ksgit@

18일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린 '2014 두산 글로벌 비즈니스 포럼'에서 존 메이저 전 영국총리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왼쪽부터 로렌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 존 메이저 전 총리. /두산 제공

예금주 사망시, 상속인 이자손해 없어

중도해지 이자율 적용 안해

구분	현행	개선
적용 금리 및 수령이자(세전)	중도해지이자율(1.05)적용 ⇒87,500원 이자 수령 (1000만원×1.5%×7/12= 87,500원) ※만기해지시 300,000원	① 당초 약정금리(3%)적용 ⇒175,000원 이자 수령 (1000만원×3%×7/12=175,000원) ② 중도해지시점까지 경과기간(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을 만기로 하는 정기예금 이자율(2.5%로 가정) 적용 ⇒145,833원 이자 수령 (1000만원×2.5%×7/12=145,833원)

최근 아버지를 여읜 김지훈(37·가명)씨는 부모님의 집을 정리하기 위해 고향집을 찾았다. 김씨는 서랍 속에서 아버지가 평소에 넣고 있던 저축은행 적금 통장을 보게 됐고 더 이상 적금을 부을 수 없어 이를 해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저축은행을 방문한 그는 만기가 되지 않은 적금을 해지할 경우 일반 중도해지율이 적용된다며 좀 더 적금을 넣을 것을 종용하는 얘기를 듣게 돼 고민에 빠졌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는 김씨와 같은 사례가 대폭 줄어든다.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한 예금자가 사망을 하면 상속인은 이자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그간 저축은행에서는 예금주 사망에 따른 예·적금 중도해지시 일반적인 중도해지시와 동일한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해왔다.

이 때문에 더이상 예·적금을 넣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태임에도 상속인들이 중도해지할 경우 1%대의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받아 고객의 불만이 컸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상속자가 사망자의 예·적금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당초 약정금리 또는 중도해지시점까지 경과기간을 만기로 하는 예·적금 이자율을 적용토록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개선하게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적금을 중도 해지하더라도 기존보다 최고 2배 가량의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예를 들어 만기 1년의 금리 3%(단리), 예치금 1000만원의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한 예금주가 7개월만에 사망할 경우, 기존에는 중도해지이자율 1.5%가 적용돼 8만7500원만 받았다.

하지만 약정금리를 적용할 경우 17만5000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중도해지시점까지 경과기간(6개월~12개월)을 만기로 하는 정기예금 이자율(2.5%)을 적용할 경우 14만5833원을 수령할 수 있다.

만기 해지시 이자가 3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종전보다 배 이상 이자수령액이 늘어나는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적금의 중도해지이자율은 저축은행, 유지기간에 따라 상이한 부분도 있다"며 "올 3분기까지 내부처리지침 등을 개정한 후 4분기부터 중도해지이자율 적용 관행 개선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갤럭시S5 광대역 LTE-A와 함께 마라톤 축제를!" 삼성전자는 19일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이색 글로벌 마라톤 축제 '컬러 미 라드(Color Me Rad) 서울'에서 '갤럭시S5 광대역 LTE-A' 소비자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삼성전자 제공

스타트업에 '꿈 펼친다'

데모데이 등 채용 활발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의 채용공고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20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그린라이트파트너스에서 iOS개발 파트너를 모집한다. 해당 경력 3년이상, 개발에 대한 열정, 글로벌 서비스 도전의식, 강력한 체력과 정신력을 갖고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23일까지 홈페이지(www.incruit.com)를 통해 입사지원을 받는다.

데모데이에서도 디자인·개발자를 모집한다. 담당업무는 서비스 UI디자인(Web, App, PC), 데모데이 사이트 개발(Back-end, Front-end)이다. 지원자격은 경력 2년 이상이다. 26일까지 e메일(help@demoday.co.kr)로 지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오마이브랜드 역시 안드로이드 앱 개발 경력자를 모집한다. 기획능력이 있는 개발자, 글로벌 서비스 경험자, php 개발 경험자 등은 우대한다. 31일까지 e메일(my@omybrand.com)로 지원할 수 있다.

빈스카이에서는 디자이너를 채용한다. 모바일 UI&UX 프로젝트 경험자, 디자인 관련 학과 졸업자 등은 우대한다. 제출 서류는 자유형식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PDF 파일로 제출, 웹은 URL 기재)다. 31일까지 인크루트 채용홈페이지에서 지원하면 된다.

앤에서 개발 경력자를 모집한다. 담당업무는 안드로이드, iOS클라이언트 개발, DB 설계·콘텐츠 개발, 프레임워크 또는 라이브러리 구축 등이다. 31일까지 e메일(ntnpluso@mom-talk.com)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국명기자 kmlee@

박성권 대표 "금융의 카카오 만들겠다"

"페이뱅크 직원이 모두 주주인 회사 만들고파"

"페이뱅크를 금융의카카오로 만들겠다."

박상권 페이뱅크 대표는 지난 16일 기자와 만나 회사의 미래에 대해 "고객 신뢰를 기반으로 기술적 우위를 앞세워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겠다"며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페이뱅크는 지난해 3월 설립된 금융 솔루션 플랫폼 서비스 회사다. 설립 1년여가 지났을 뿐이지만 적극적인 투자와 다양한 금융 솔루션·모바일 마케팅 플랫폼 서비스 개발을 통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박상권 대표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자금 조달이 필요한만큼 신규 시장을 선점해 2016년 코스닥 상장을 한 후 2018년에는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대표적인 세계 금융 프로바이더로 거듭나고 싶다"고 각오를 전했다.

그는 "직원들이 모두 주주가 되는 회사를 만들고 싶다"며 "꾸준한 성장을 바탕으로 직원들이 향후 은퇴후에도 자기 사업으로 이어갈 수 있는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페이뱅크의 대표적인 서비스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기반의 판매시점관리(POS) 단말기와 스마트 스탬프 '스탬프백' 서비스다.

안드로이브 POS 단말기는 기존 신용카드 POS 단말기와 달리 통신·금융과 연계한 지속적인 금융콘텐츠 서비스 제공이 특징이다.

"페이뱅크를 금융의 카카오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는 박성권 페이뱅크 대표는 "안드로이드 POS 단말기와 스탬프백 서비스를 통해 시장에서 대표적 스타트업으로 우뚝 서겠다"고 말했다.

/사진=손진영 기자 son@

스탬프백 서비스는 별도의 보조 장치없이 모든 스마트폰에 직접 도장을 찍어 종이쿠폰 대신 스마트폰 하나로 쿠폰 적립이 가능하다.

특히 페이뱅크는 스탬프백 서비스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서비스 가맹점은 기존 전단지를 통한 비효율적인 홍보와 비용 부담에서 벗어나 단골고객과 신규고객의 데이터 확보를 통해 매장의 매출증대가 가능하다. 고객 역시 수많은 종이 쿠폰으로 두툼해진 지갑과 분실 우려를 스마트폰 하나로 덜 수 있고 회원가입으로 자주가는 매장의 각종 이벤트 소식이나 할인 혜택도 추가로 누릴 수 있다. 최근에는 대기업과 제휴를 통해 스탬프백 서비스의 보편화도 꾀하고 있다.

박 대표는 "대기업과의 상생 비즈니스를 통해 스탬프백 서비스의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며 "향후 이 같은 금융·통신·결제 서비스에서 한 발 나아가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 플랫폼 개방을 통해 다양한 제3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픈 마켓을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노스페이스와 함께하는 '올림픽의 날' 1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노스페이스와 함께 하는 2014 올림픽의 날' 행사에서 달리기 대회 참가자들이 힘차게 출발하고 있다.

/노스페이스 제공

라인 日 이어 美 상장 추진

자금·인지도 동시 겨냥

네이버의 글로벌 모바일 메신저 '라인'이 일본에 이어 미국 증권시장에도 상장 계획서를 신청했다.

비슷한 시기에 미국과 일본에 상장을 추진하는 배경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블룸버그통신 등 미국 외신들은 라인이 미국 증권당국에 기업공개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라인은 뉴욕증권거래소나 나스닥에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관사는 모건스탠리로 알려졌다.

라인이 일본에 상장을 신청할 때 공모가액이 10조원에 육박한 만큼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유치할 지도 관심거리다.

점유율 1위인 일본에서의 상장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하지만 전체 앱 순위 30~60위를 맴도는 미국에서의 상장은 다소 의외라는 게 전반적인 평가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일본 상장=돈, 미국 상장=이벤트'로 추측하고 있다.

확실한 상품성을 인정받은 일본에서 10조원이라는 거액을 유치하고 아직 '라인'이 낯선 미국에서는 아시아계 브랜드가 상장을 추진한다는 것만으로도 제품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라인은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을 발판으로 5억명에 가까운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거대 내수 시장을 지닌 유럽과 미국에서는 갈 길이 멀다. 특히 텐센트의 '위챗', 페이스북의 '왓츠앱'과 같은 공룡 메신저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이들 지역에서 더 많은 유저를 사로잡아야 한다.

/박성훈기자 zen@

www.HanaTour.com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Honeymoon

허니문 주말상담회

예비신랑 예비신부님 주말에도 허니문 상담 받으세요!

던킨 도너츠
공평 갤러리
하나투어 본사 2층
삼성생명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1호선 종각역 3번 출구
피자헛
종각역

허니문 주말상담회 일시

- 2014년 7월 26일(토요일)
- 2014년 8월 23일(토요일)

허니문 주말상담회 장소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5길 41
하나투어 빌딩 2층 하나투어리스트

허니문 주말 상담회에 참여하는 신랑 신부님께 드리는 특전!

EVENT 01 하나투어 마일리지 40만 마일리지 지급!

EVENT 02 면세점 5만원 선불카드 교환권 지급!
(2014년 12월 31일까지 출발 고객)

괌 ★ 전일정 호텔식 5일

쉐라톤 라구나 스윗룸

1,985,200부터

▶ 매주 토,일,월요일 출발(일부날짜 제외)

- 괌(4)
- 최고급 허머리무진 시내관광 및 야경투어
- 커플당 50만원 할인혜택
- 최고급 앙사나 스파 30분 포함, 미니바 1회 오픈

하와이 ★ 반자유 6일/7일

힐튼 하와이안빌리지

2,627,100부터

▶ 매주 토,일,월요일 출발(일부날짜 제외)

- 하와이(4/5)
- 레인보우 오션뷰 무료 룸 업그레이드
- 쌍당 50만원 할인혜택, 와이켈레 프리미엄 아울렛 포함
- 하와이 추천 스팟투어 및 맛집투어 포함

이태리 ★ 로마가이드 7일/8일

세미팩-피렌체/베니스 자유여행

2,836,600부터

▶ 매주 토,일,월요일 출발(일부날짜 제외)

- 이태리(5)
- 준특급 4성급 호텔
- 이태리 전문 가이드와 함께 로마 전용차량으로 관광
- 로마→프렌체→베니스 열차 2등석 포함

보라카이 ★ 세일링 보트 5일

가든리조트-프리미어룸

1,465,000부터

▶ 매주 일,월요일 출발(일부날짜 제외)

- 보라카이(3)
- 아일랜드 호핑투어 포함
- 사전예약 쌍당 30만원 할인
- 피로를 풀어줄 황제 마사지(약 70분 포함)
- 공동경비 포함, 보라카이섬을 둘러보는 버크카 1시간 포함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는 포함입니다.(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유류할증료]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권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가이드/기사경비] 현지에서 지불해야하는 필수 경비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필요로 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비자요금은 상품가에 불포함입니다.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너팁]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지불 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본 여행상품은 (주)하나투어리스트에서 판매하고 실제 여행주관은 (주)하나투어가 담당합니다. ■(주)하나투어 :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26004-1993-6(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5길 41 하나투어 빌딩/영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주)하나투어리스트 : 일반여행업 등록2002-3호(서울시 종로구청)/영업 보증보험 5억 5천만원 가입 ■고객칭찬/불편접수 :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9번) ■최소 출발인원 : 10명 기준 ■호텔 : 2급호텔 이상 2인 1실 사용 ■교통편 : 항공/버스/훼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HNT 하나투어리스트

허니문 상담팀 02) 2127-1234

HNT 하나투어

저축성보험 수수료·금리구조 챙겨야

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 이야기

'금융감독원과 함께하는 금융 이야기' 이번주 주제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기 전 알아둬야 할 사항입니다.

저축성 보험은 노후 준비와 목돈 마련을 위해 주로 가입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은행 예·적금과 비슷해 혼동하기 쉽지만 엄연한 보험상품이므로 가입할 때 수수료와 금리 산정 구조 등을 잘 살펴 가입해야 합니다.

1. 보험 상품이므로 예·적금과 달리 각종 수수료 비용이 원금에 포함됩니다.

은행 예·적금은 납입한 원금 전체에 은행이 정한 이자가 붙어 만기 지급됩니다. 반면 저축성 보험은 납입한 원금에서 위험보험료와 계약 체결·유지비(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에 이자가 붙습니다.

사망이나 입원, 수술과 같은 불의의 사고 위험에 대비하는 보장성 보험의 성격을 동시에 갖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어떤 위험이 보장되는지와 함께 금융사별·상품별 사업비 수준을 상품요약서와 보험협회 공시실을 통해 잘 확인해 적절한 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품요약서를 확인하려면 보험사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상품목록(판매중)→상품별상품요약서(수수료 안내표)를 참조하면 됩니다. 또는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 체결 권유시 개별 계약자의 가입조건에 따라 제공하는 가입설계서의 수수료 안내표를 참고해도 됩니다.

2. 금리연동형에 가입했다면 공시이율 변동추이와 최저보증이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저축성 보험은 이자율 적용방법에 따라 만기까지 이자율이 변동되지 않는 금리 확정형과 이자율이 주기적으로 변동되는 금리 연동형으로 나뉩니다.

즉시연금보험 등 대부분의 저축성 보험 상품은 금리 연동형이므로 가입 전에 상품 유형을 확인해야 만기 지급액을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리 연동형은 금융회사가 매달·매분기·매년 등 일정 주기별로 변동이자율을 공시합니다.

금리 연동형의 공시이율 적용주기와 변동추이, 공시이율 수준별 예상상품 수익률을 확인하려면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보험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공시실에 접속하면 1~5개의 상품의 공시이율과 예상 상품수익률을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공시실→상품비교공시→저축성보험 비교공시(금리연동형저축성보험)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공시실(상품비교공시)→장기저축성보험 수익률→보험종목 선택→비교공시표 보기)

또 금리 연동형은 시중금리 하락으로 공시이율이 떨어져도 일정 수준의 보험금을 보증하기 위해 최저보증이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상품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계약 경과기관에 따라 10년 이내는 2.5%, 10년 초과는 2.0% 수준입니다.

3. 가입 후 여유자금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뒤 여유자금이 생겼다면 추가납입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상품별로 정한 한도에 따르며 기본보험료 납입 한도의 2배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 해당 월의 기본보험료를 낸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정리=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주식투자 실패도 문제삼지 않는다?

김현수 법무사의 개인회생 이야기

요즘 종합주가지수가 오르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 중에는 주식투자에서 실패한 경우가 적지 않다.

사실 개인회생 신청 요건을 따지면서 주식투자 실패는 문제삼지 않는다. 도박을 하건, 로또 복권을 무리하게 많이 샀든 어떻게 빚을 진 과정은 개인회생의 기각사유가 되지 않는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실하지만 불운한' 피해자를 구제해주려는 취지이다. 약육강식의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아무리 발버둥쳐도 낙오되거나 실패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이고 이를 전적으로 개인의 잘못으로 볼 수 없는 여지도 있다.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빚을 진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의 불행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사회가 구제해주려는 것이다.

주식투자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점이 있다. 무리하게 주식투자에 나선 점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채무자들의 입장은 절박하다. 어느 사람은 주식투자 실패후 어려운 입장에서 보이스피싱까지 당했다. 돈 조달이 어렵자 간단하게 전화로 대출해준다는 말을 믿고 사기를 당한 것이다.

미리 주식투자의 위험성, 도박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는 자세가 채무자들에게는 무엇보다 필요하다. /www.lawshelp.kr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20일 오전 고양시 일산 원마운트 스노우파크를 찾은 어린이들이 산타클로스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기업 광고에 '혁신'을 더하다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이 '혁신을 혁신하다'는 슬로건으로 선보인 기업이미지 광고가 독특한 비주얼과 내레이션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TV·신문 등을 통해 선보인 광고는 SK이노베이션이 추구하는 기업가치인 '혁신'을 주제로, 회사가 영위하는 주요 사업들을 과거 현재 미래의 스토리로 연결했다.

TV CF에서 보기 힘든 흰 바탕에 컬퍼풀한 3D 애니메이션 화면이 빠르게 전개되며 (과거)공룡 세 마리가 풀을 뜯다 순간 기름통으로 바뀐다. 이어 (현재)지구본 위에 석유개발하는 장면이 나오더니 이내 (미래) 배터리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고, 석탄으로 석유를, 이산화탄소로 플라스틱을 만드는 장면이 나온다.

이는 SK이노베이션이 석유 한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을 산유국으로 혁신했고, 석유에너지를 넘어 전기차 배터리를 개발하는 등 다가올 미래와 환경을 위해 멈추지 않는 혁신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항수 홍보실장은 "SK이노베이션은 광고를 통해 생각과 고정관념을 깨는 재미있고 혁신적인 내용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ksgit@

건강한 노후, 치매예방 필수

금융가 사람들

■장준영 미래에셋 선임연구원

고령화 사회를 맞아 은퇴자금 마련 등 재무적 측면의 대비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그러나 장준영(사진)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노후에는 건강한 삶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다"며 "특히 고령자 35%가 노후에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으로 꼽힌 치매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장 연구원은 "한국도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치매환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치매 유병률은 2012년 기준 9.18%, 환자 수는 약 54만명으로 추산되며 향후 2030년엔 127만명, 2050년엔 271만명으로 급증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20년마다 두 배씩 불어나는 셈이다.

치매에 대한 우려는 전 세계적인 공통 현상이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지난 달 런던에서 열린 치매회의에서 암과 함께 치매를 인류의 가장 큰 적으로 공표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치매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방송했다.

치매환자가 크게 늘면서 관련 사회 병폐도 불거졌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사건과 실종, 1인 고독사, 무연사 등이 생겨났다.

장 연구원은 "일본 한 증권사의 직원이 치매환자인 고령 고객의 판단력이 흐려진 점을 악용해 보호자를 사칭해 고객의 기존 펀드를 매도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상품으로 갈아탄 금융사기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치매의 조기 진단과 대응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연구원은 "치매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며 "경도인지장애(MCI)나 퇴행성 기억력 저하 등의 문제가 있다면 치매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기에 적절하게 치료해야 증상을 늦추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im1@

▲한 줄 평가: 쿠페이든 컨버터블이든 개성만점이다. 게다가 경쟁차종 중 주행감각이 가장 낫다. ▲평점: ★★★★★(평점은 별 다섯 개 만점.)

날렵한 주행·튀는 외관… 질주본능 깨우다

■ BMW 쿠페&컨버터블

베스트셀러 차종을 고르면 선택의 실패 가능성은 줄어들지만 희소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BMW 5시리즈,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가 '강남 쏘나타'로 불리는 이유도 그만큼 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좀 더 개성 있는 차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번에 소개하는 BMW 4시리즈 쿠페와 컨버터블은 이런 수요층에 딱 어울리는 차다. BMW 3시리즈와 5시리즈 사이의 가격대여서 큰 부담이 없는 데다, 세단보다 독특한 외관이 매력적이다.

BMW는 이전에 3시리즈 쿠페와 컨버터블이 있었는데, 새로운 모델을 내놓으면서 '4시리즈'로 명명했다. 구형보다 좀 더 차별화했고 한 급 위에 포지셔닝 하기 위함이다.

쿠페의 차체는 3시리즈 세단보다 67mm나 낮아졌고, 트레드(좌우 바퀴 축간 거리)는 앞 11mm, 뒤 2mm가 넓어졌다. 3시리즈 세단과 같은 휠베이스임에도 한층 날렵하고 스포티한 느낌을 주는 이유다. 달라진 앞 범퍼와 테일램프도 4시리즈를 더욱 멋지게 만드는 요소다.

코럴 레드 다코타 가죽과 파인 브러시드 알루미늄으로 마감한 실내는 동급 최고다. 구형보다 길어진 휠베이스 덕에 쿠페의 단점인 좁은 뒷좌석도 극복했다.

뒷좌석 레그룸과 헤드룸은 키 180cm 이하라면 불편함이 없다.

쿠페는 420d와 428i 두 가지 모델로 나오는데 시승차는 420d 럭셔리가 준비됐다. 이 차의 엔진은 320d와 같은 184마력의 최고출력과 38.8kg·m의 최대토크를 낸다. 같은 엔진이지만 주행감각은 약간 차이를 보인다.

차체가 낮은 만큼 시트 포지션이 낮아졌고, 댐퍼가 3시리즈보다 단단하게 설정됐기 때문이다.

컨버터블은 쿠페와 달리 428i 한 가지 모델만 나온다. 420d 쿠페의 묵직하고 두툼한 토크 밴드와 달리 강렬하게 치솟는 가솔린 엔진 특유의 느낌이 좋다. 지붕이 열리는 구조상 소음이 큰 디젤보다는 가솔린 엔진이 훨씬 더 잘 어울린다.

쿠페와 다른 장비 중 하나는 앞 시트에 마련된 '에어 칼라' 기능이다. 추운 날 지붕을 열고 달리고 싶을 때 이 기능을 작동시키면 앞좌석 승객의 목 부위에 온풍이 나오면서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에어 스카프' 기능과 유사하다.

4시리즈 쿠페와 컨버터블의 대항마로는 아우디의 A5 쿠페와 컨버터블을 꼽을 수 있다. A5는 4시리즈와 달리 디젤이 없고 가솔린 터보 한 가지 엔진만 있다. 최대토크는 같지만 최고출력이 220마력으로 428i(245마력)보다 열세다. 메르세데스 벤츠 E200 쿠페와 컨버터블도 경쟁모델인데, 최고출력(184마력)과 최대토크(30.6kg·m)가 경쟁차종 중 가장 떨어진다. 4시리즈 쿠페는 6가지의 트림이 있고 시승차인 420d 럭셔리는 그 가운데 중간수준인 5590만원이다. 428i 컨버터블의 가격은 6970만원, M 패키지는 7320만원이다.

경쟁차종과 비교할 때 모델 선택 폭이 넓고 가격대도 다양하다. 평범한 세단에서 느낄 수 없는 개성과 운전재미를 맛보고 싶다면 4시리즈 쿠페나 컨버터블을 추천한다.

/임의택기자 ferrari5@metroseoul.co.kr

기아차, 프로야구 올스타전 마케팅 돋보였다

올 뉴 카니발·K5 등 박찬호와 박병호에 제공

박찬호가 프로야구 올스타전에서 기아 올 뉴 카니발을 에스코트 차량으로 제공받았다.

기아자동차가 18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2014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올스타전'에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우선 기아차는 이 날 시구자로 나선 한국 최초의 메이저리거 박찬호 선수를 위해 최근 출시된 올 뉴 카니발을 에스코트 차량으로 제공했다.

아울러 기아차는 웨스턴(서군)과 이스턴(동군)으로 나누어 치러진 이 날 올스타전에서 홈런 2개 포함 4타수 3안타로 맹활약 해 MVP에 선정된 미스터 올스타 넥센 히어로즈 박병호 선수에게 기아차의 대표 중형세단 더 뉴 K5를 부상으로 수여했다.

박병호 선수는 소감을 통해 "운 좋게 미스터 올스타에 뽑혀 더 뉴 K5를 받게 돼 기쁘다"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기아차는 경기장 주변에 실제 차량 조작으로 레이싱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차량 쏘울 레이싱(SOUL Racing)을 설치, 2인 1조 게임에서 승자에게 또봇 완구를 경품으로 증정했다. 미니밴 올 뉴 카니발과 새롭게 출시된 'K7 2015'를 전시해 고객들이 직접 차량을 살펴보고 구매 상담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올 뉴 카니발, 더 뉴 K5 등 기아차의 차종들이 올스타전을 찾은 많은 야구팬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성공적인 대회 운영에 도움이 된 것 같아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기아차는 프로야구의 지속적인 발전과 흥행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아차는 2012년 이후 3년 연속 프로야구 자동차부문 공식 후원사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홈구장에 ▲우중간 잔디석 홈런존을 맞춘 선수에게 더 뉴 K5, 올 뉴 쏘울 등 차량을 증정하는 KIA 홈런존 ▲경기 중 파울, 도루, 견제 등 다양한 상황을 자동차 효과음을 이용해 익살스럽게 표현하는 자동차 사운드 중계 등 다양한 마케팅으로 야구팬들에게 기아차 브랜드를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임의택기자

<국산차 인기모델 중고차 시세>

단위:만원

제조사	차종	2009년식	2010년식	2011년식	2012년식	2013년식
기아	뉴모닝	570	620	650	850	–
쉐보레	스파크	–	510	720	750	890
현대	엑센트신형	–	1,020	1,060	1,120	1,230
	아반떼MD	–	1,190	1,210	1,330	1,470
쉐보레	크루즈	950	1,310	1,410	1,560	1,670
르노삼성	뉴SM5	1,100	1,340	1,400	1,640	2,060
쉐보레	말리부	–	–	1,930	1,960	2,150
현대	YF쏘나타	1,310	1,420	1,620	1,720	1,770
	그랜저HG	–	–	2,100	2,370	2,880
	투싼ix	1,550	1,580	1,660	1,900	2,020
	싼타페 DM	–	–	–	2,760	2,820

정보제공 : 다나와 자동차(auto.danawa.com)

러시아 국제조사에 협조하라

뉴스룸에서
김 민 준
<정치·사회부장>

지난 17일(이하 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떠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가던 말레이시아항공 MH17편 보잉 777 여객기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미사일을 맞은 뒤 추락해 승객 283명과 승무원 15명이 전원 사망하는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다. 민간 여객기가 격추돼 발생한 사망자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한국인 탑승자는 없었지만 189명의 자국인이 숨진 네덜란드와 29명이 탑승한 말레이시아, 27명이 사망한 호주 등 세계 각국은 슬픔과 충격에 휩싸였다.

미국과 서방 당국은 여객기 피격이 우크라이나 내 친 러시아 반군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분위기다. 여객기에 대한 공격에는 러시아제 SA-11 지대공 미사일이 동원된 것으로 봤다. 하지만 러시아와 친 러시아 반군 등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소행이라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의 주도로 객관적인 국제조사가 필요하다. 유엔 역시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해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이러한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국제조사단의 현장 접근과 자유로운 조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미 사고 현장은 우크라이나 반군 주도로 심하게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은 반군은 물론 인근 주민들까지 사건 현장에 몰려들어 유류품들을 모두 헤집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반군이 블랙박스(비행기록·음성기록장치)를 다른 곳으로 옮겼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장의 시신은 섭씨 30도가 넘는 날씨에 빠르게 부패해 가고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반군은 여전히 현장을 통제하면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등 국제 조사단의 접근을 일부만 허용하는 실정이다.

러시아나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반군 세력이 이번 사건에서 떳떳하다면 현장 통제를 접고 국제 조사단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이들의 소행이 사실로 들어날 경우 테러단체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

네덜란드 국민은 희생자의 시신이 들판에 내버려져 있는 사진을 보고 분노하며 전쟁이라도 벌일 태세다. 러시아가 자꾸 문제를 회피한다면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을 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최경환호, 경기부양책 위험요소도 많다

청론탁설
유 병 필
<언론인>

박근혜 정부 제2기 경제팀은 경제 활성화에 올인 할 태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주 취임식을 갖고 첫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경제는 저성장, 저물가, 과도한 경상수지 측면에서 심각한 축소균형을 향해 가는 불균형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경기부양대책을 내놓았다.

주요 골자는 올해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대신 각종 기금 등을 통해 내년까지 30조원을 풀기로 했다. 또한 지금까지 부동산 경기부양의 핵심 이슈로 제기됐던 부동산 담보대출도 과감히 완화할 방침이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로 올리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서울과 수도권 관계없이 60%로 올릴 것을 시사했다.

이번 최 부총리의 경기부양책에서 눈에 띄는 점은 기업들의 사내유보에 대한 시각이다. 기업에서 창출된 소득이 배당이나 임금으로 가계로 흘러가게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10대 그룹의 사내 유보금은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CEO스코어가 10대 그룹 81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1분기 사내유보금은 515조 9000억 원으로 5년 전 271조원 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정부의 경기부양책을 보면 종전보다는 매우 파격적이다. 최 부총리 자신도 "할 수 있는 정책은 모두 동원해 우리 경제에 온기(溫氣)를 느끼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드라이브에는 위험요소도 적지 않음을 직시해야한다. 우선 우리나라는 국가부채와 가계부채가 각각 1000조원을 넘어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 이러한 판에 재정적자 확대를 얼마나 감수할 것인지, 부동산 대출을 완화해 생기는 가계부채 증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비록 재정적자는 감수한다고 해도 가계부채 대책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한다. 비록 배당이나 임금으로 가처분소득을 늘린다고 하나 대부분의 서민가계는 '그림의 떡'일 수도 있다. 더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빈부격차로 비롯되는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는데 깊은 배려가 요구된다. 이미 우리나라는 소득의 불평등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가 위험수준(0.4)에 접근하고 있다.

여기에다 상위 10%가 차지하는 소득이 이미 45%나되어 일본이나 프랑스보다도 불평등하다는 보고도 나오고 있다. 경기부양에 올인하다 자칫 가계부채와 양극화 문제가 더 악화되면 더 많은 시련을 겪을지도 모른다.

포토프리즘 삼계탕을 향한 굳센 의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종로 체부동의 한 삼계탕집 앞이 사람들의 행렬로 장관이다. 초복날 삼계탕을 먹으려고 줄서 기다리는 모습이다. 30도를 웃도는 더위속에서도 이열치열을 위해 한시간이 넘도록 대기하는 인간의 의지가 놀랍다. /손진영기자 son@

'팬택 살리기' 해법은?

기자수첩
이 재 영
<경제산업부 기자>

팬택 정상화를 위한 움직임이 여전히 구체적 성과 없이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다.

그동안 '팬택 살리기'의 초점은 이동통신사 출자전환 참여 여부에 맞춰져 있었으나 이제는 상황이 변하고 있다. 출자전환 참여 여부를 놓고 그동안 묵묵부답이던 이통사가 최근 채무상환을 2년 연장하는 쪽으로 긍정적인 기류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여전히 검토단계에 있지만 상환유예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기울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아직 팬택의 채무상환 시한이 남아있는 만큼 내부에서도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긍정적인 분위기에 채권단이 다시 찬물을 끼얹고 있다. 채권단측은 채무상환 유예뿐 아니라 단말기 최소 물량 구입을 이통사측이 약속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이통사측은 지금도 약 70만대의 재고가 있는 입장에서 팬택 제품을 추가로 구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기업 운영은 시장원리에 따라야 한다. 투자에 따른 이득이 있어야 기업도 투자를 한다. 이런 점에서 채권단의 '이통사에 책임 떠넘기기'식 압박 행위는 지나친 것처럼 비춰진다.

채권단은 오히려 '팬택 살리기'를 위해 이통사를 앞세운 조건부 출자전환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먼저 팬택이 급한 불을 끌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서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을까. 채권단은 이준우 팬택 대표가 최근 기자회견에서 "현재 채권단 제시안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워크아웃이 중단되지 않도록 적극 나서달라"는 외침도 적극 살펴야 할 것이다.

응시(凝視)

인문학 산책
김 민 웅
<성공회대 교수>

"바위를 그릴 때 처음에는 그저 고정된 형태의 딱딱한 물체야. 그런데 계속 응시하고 한참 그리다보면, 그 바위가 점점 부드러워지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신을 변모시켜 가거든." 화백 박재동과 난데없이 중력과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의 화제는 저절로 자연과 인간에 대한 쪽으로 옮겨갔다. 암석 같은 무생물도 인간과 인연을 맺으면 어느새 생물체처럼 지금과는 전혀 다른 기운과 움직임, 그리고 표정을 갖게 된다는 그의 깨달음에 나 역시 크게 동의를 표했다. 세상의 만물은 우리의 마음과 서로 통하는 순간, 서로 엉켜 내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우주로 창조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은 그렇지 않아도 요즈음 한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공진화(共進化)/co-evolution"의 개념과 맞닿아 있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상생(相生)할 수 있는 세상에 대한 고뇌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겠다 싶었다. "공진화"란, 자연과학자 제임스 러브록이 지구전체를 대지의 여신 가이아(Gaia)로 이해하면서 등장하게 된 개념이다. 지구란 그 안에 있는 생물과 무생물 전체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새로운 환경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가 생물의 생명활동에 의한 결과물이기도 하다는 점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가 간다. 땅에 사는 존재가 하늘을 만들고 있는 셈이다.

지난 주 한겨레신문에 <타인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풍경, 우리들의 초상"이라는 사진과 글이 눈을 끌었다. 한 마리 갈매기가 점처럼 날고 있는 하늘과 구름으로 수평선을 드러낸 바다, 그 바다와 맞닿아 있는 해변, 그리고 그 안에 누군가 홀로 서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작가 고현주의 작품이다. "바람과 빛이 오랜 시간 서로 관계를 맺으며 펴낸 것이 풍경이다. 그 산이 원래 거기 있었던 게 아니다. 끊임없이 일렁이고, 움직이고, 흐르고 반짝이며 만들어 내는 것이다. 얼마나 오래 머무르느냐에 따라 풍경의 색이 달라진다. 동네에서 머물러야 동네사람이 되고 (.....) 머문다는 것은 함께 된다는 것이다. 이 세상 저 혼자 존재하는 풍경은 없다."

"응시"라는 한자는 엉길 응(凝)자와 자세히 본다는 시(視)가 합친 말이다. 무생물의 존재와 풍경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우리의 눈길이 이 힘겨운 세상도 살려 낼 수 있지 않을까? 깊고 오래 바라봄을 통해서.

휴가철 '동안 미녀' 되고 싶다면…

'필러 시술' 미세한 차이로 이미지 달라져
목적·지속 기간 따져 맞는 제품 선택해야

본격적인 여름휴가가 시작됐지만 여행 계획보다 휴가 기간을 이용해 고민 부위를 개선하려는 미용 시술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휴식 시간도 고려해 짧은 기간 티 안 나게 시술을 받고 싶어하는 환자들이 필러 시술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전문 의료진·부작용 확인해야

필러 시술은 주사를 이용해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시술 후에는 부기나 통증이 남지 않는다. 또 필러는 피부 속에 주입하는 일종의 충전재 역할을 하며 얼굴의 꺼진 부위, 볼륨이 필요한 부위에 주사하면 입체감을 살릴 수 있다. 이런 장점으로 중·노년층은 물론 20~3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필러 시술을 선호하는 추세다.

중요한 것은 가벼운 주사 시술이라고 간과해 무분별하게 받거나 필러를 잘못 주사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자의 얼굴 근육과 골격, 각 부위 지방의 분포 정도를 정확히 파악해 정교한 시술을 해야 한다. 어떤 방향에서 얼마만큼 주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 의료진을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 필러제를 선택할 때는 시술 목적과 지속 기간 등을 따져서 자신에게 맞는 필러를 선택해야 한다. 만약 긴 지속 기간이 필요하다면 비흡수 콜라겐과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의 합성물로 구성된 '아테콜' 필러와 같은 반영구 필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 필러가 몸에 오래 남아있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히알루론산 계열의 필러를 사용해야 한다.

반재상 바노바기성형외과 원장은 "인체 친화적인 물질로 이뤄진 필러의 안전성은 이미 검증된 상황이다. 하지만 알레르기, 피부 괴사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어 전문 의료진이 있는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대처 가능한 장비가 있는지도 미리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11번가, 'SAFE ZONE' 기획전 실시 오픈마켓 11번가에서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물놀이 안전용품과 방범·호신용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는 'SAFE ZONE' 기획전을 8월 31일까지 실시한다. 기획전 오픈을 기념해 20일 서울 을지로 T타워에서 경찰과 소방관 복장을 한 남녀 모델이 아이들과 함께 SAFE ZONE에서 판매하는 다양한 안전용품을 선보이고 있다. /11번가 제공

'건강한 여름'… 건강강좌 듣자

당뇨·요통 관리 등 강의

건강관리에 자칫 소홀할 수 있는 여름철을 맞아 대형병원들이 다양한 건강강좌를 준비했다.

서울대병원 장기이식센터는 장기이식과 관련된 강좌를 연다. 21일 '소아 이식'을 주제로 한 강좌가 어린이 병원에서 열리고 22일에는 '이식 후 합병증 관리' 강좌가 열린다.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또 서울아산병원 당뇨병센터는 24일 병원 동관 대강당에서 '당뇨 합병증 관리와 신장 및 췌장 이식'이라는 건강강좌를 마련했다. 고은희 내분비내과 교수와 김영훈 일반외과 교수가 강연을 맡아 당뇨병의 올바른 관리법과 신장과 췌장 이식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또 참가자가 직접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질의응답 시간도 있다.

이와 함께 힘찬병원은 24일 6개 분원(강남·강북·강서·목동·은평·인천)에서 '중년요통 생활 속 대처법 알아보기'라는 무료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중년 허리통증을 유발하는 원인과 다양한 질환에 대해 함께 살펴볼 수 있으며 질환에 대한 진단과 치료법의 정보도 소개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도의 신청 없이 강좌 당일 가까운 힘찬병원에 가면 된다. /황재용기자

자전거 여행, '장경인대증후군' 주의보

스트레칭으로 근육 풀고 라이딩 후엔 냉찜질해야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자전거로 휴가를 즐기려는 일명 '자여족(자전거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자전거 인구가 급증하면서 자전거로 인해 병원을 찾는 환자들도 증가했다. 충돌사고로 인한 골절 환자를 비롯해 자전거를 오래 타면서 생기는 '장경인대증후군' 때문이다.

장경인대증후군은 허벅지 바깥쪽을 따라 길게 뻗어있는 인대가 대퇴골을 지나가는 부위인 무릎 외측 부에서 이상이 생기면서 인대와 점액낭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일반적인 염좌와 달리 환부가 붓지 않으며 쉬거나 가만히 있으면 통증이 없다가 움직일 때 통증이 생기는 것이 특징이다. 게다가 이 질환은 '교활한 작은 악마'로 불릴 정도로 자전거를 오래 타는 사람들에게 쉽게 발생한다.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전거를 타기 전 스트레칭을 철저히 해야 한다. 몸의 오른쪽이 벽을 향하도록 선 후 벽에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 뒤로 교차시키고 왼쪽 무릎을 굽히면서 오른쪽 엉덩이를 벽쪽으로 기울이면 된다. 또 양손을 벽에 짚은 다음 한쪽 발을 다른 쪽 발의 앞에 두고 앞쪽에 있는 무릎을 굽혀서 체중을 앞으로 이동시키고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라기항 용인분당예스병원 원장은 "장경인대증후군은 빠른 치료보다는 오랜 시간을 두고 치료해야 한다. 운동 전후 충분한 스트레칭이 필요하며 자전거를 탄 후에는 무릎 주위에 냉찜질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이화의료원, 몽골서 의료봉사 진행

국제 심포지엄도 개최

이화여대 의료원(원장 이순남)이 최근 병원 2층 대회의실에서 '2014 몽골 의료봉사단' 발대식을 가졌다.

이번 봉사에는 백남선 이대여성암병원장을 필두로 정혜원 산부인과 교수, 김태헌 소화기내과 교수 등 총 11명이 참가한다. 이들은 21일부터 26일까지 5박 6일의 일정으로 몽골 어문고비 아이막 달란자드가드시 일대에서 봉사활동을 해 이화의 설립 정신인 '섬김과 나눔'을 실천할 계획이다.

또 의료봉사를 마친 후 백 병원장은 몽골 울란바타르 송도병원과 몽골 국립 의대에서 유방암 수술 시연과 강의를 해 우리나라의 선진 의료기술을 전파하고 국제 심포지엄도 개최할 예정이다.

백 병원장은 "이화의료원은 봉사활동 전 현지 의료진과 소통을 통해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에 전문의를 현지에 파견해 왔다. 이번 봉사가 몽골 국민들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한국과 몽골의 의료기술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프로야구 경기장 편의점 "웃고 울었다"

관중 수 증가에 '함박 웃음', 월드컵 기간엔 매출 하락한 곳도

2014 프로야구도 어느덧 전반기를 마무리 지었다. 이미 400만 관중을 넘어서면서 700만 관중 돌파의 청신호를 밝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메트로신문이 CU와 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 등 매장 수 상위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자료를 요청해 이 중 CU와 세븐일레븐·미니스톱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관중 수 변화가 야구장 내 편의점 매출에도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세븐일레븐의 부산 사직야구장과 대구 시민운동장 내 점포 매출을 분석한 결과 야구 개막전이 시작된 지난 3월 29일부터 7월 13일까지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12.7% 증가했다. 이들 경기장의 경우 이미 지난해 관중수의 약 70%를 넘어서며 관중몰이를 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상품 별 매출 구성비를 보면 가장 잘 팔리는 상품은 치킨·떡볶이 등 즉석 조리식품이 35.4%로 인기를 끌었으며 맥주 27.9%, 음료 12.3%, 과자 8.9% 순으로 주로 관람 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간식류가 잘 팔렸다. 특히 전반기 마지막 주말 경기가 있었던 지난 12일과 13일의 경우 더워진 날씨로 아이스커피와 아이스크림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각각 120.1%, 110.7%나 증가했다.

세븐일레븐 사직야구장점 관계자는 "월드컵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야구 열기가 오르면 매출이 더욱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기가 있는 날에는 평소에 비해 10배 이상 재고를 확보하고 추가 인원을 배치하는 등 고객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CU가 입점한 인천 문학구장과 창원 마산종합운동장 내 9개 점포의 전반기 매출은 전년보다 10% 가량 감소했다. 브라질 월드컵 개최로 인한 관중 수 변화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통상적으로 월드컵이 열리는 해는 야구 인기가 다소 시들해지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페넌트레이스 일정의 약 60%를 소화한 현재, 두 구장은 지난해의 약 60% 정도의 관중이 전반기에 입장해 관중 수에 큰 변화가 없었다. 상품 구성별로는 컵라면·커피·얼음 등은 전년보다 매출이 상승했고 생수와 육가공류는 10%대의 감소세를 보였다.

CU 관계자는 "프로야구의 열기가 높아질수록 야구장 편의점의 매출도 해마다 상승하고 있지만 올해는 월드컵으로 주춤한 편이었다"며 "올스타 전 이후에는 팀간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야구장으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매출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신축 개장한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는 광주 무등경기장의 지난해 총 관중 수를 올해 전반기에 이미 돌파하는 등 특수를 누리고 있다. 이 곳에 처음 입점한 미니스톱의 경우 다른 점포에서는 판매되지 않는 특화된 상품으로 야구팬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대표적으로 '타이거즈 볼'은 야구공 모양의 호두과자인데 야구공의 실밥 무늬와 KIA 타이거즈의 'T'로고가 새겨져 있어 보는 즐거움을 더했다. 또 특화된 핫도그인 '타이거즈덕'과 짜장면·스파게티·버터구이오징어 등이 이 매장에서만 판매되고 있다. 이 때문에 상품군별 매출에서도 맥주에 이어(36.9%) 치킨 등 특화 제품으로 구성된 패스트푸드·디저트 상품군(13.9%)이 많이 판매됐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metroseoul.co.kr

채소·과일의 만남 '믹스 음료'

맛과 영양을 한번에

최근들어 '믹스 음료'가 음료 업계의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믹스 음료란 여러 가지 재료의 음료를 혼합해 새로운 맛을 만들어 낸 제품이다. 건강한 채소와 과일의 조화로운 배합은 각 재료의 맛을 배가시켜 준다는 장점이 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입맛도 돋울 수 있으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음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 건강 재료의 대표적인 채소와 과일을 혼합한 음료가 주목 받고 있는 것이다.

코카콜라사의 주스 음료 브랜드 '미닛메이드'는 뿌리채소 당근에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4가지 과일인 오렌지·사과·백포도·망고의 과즙을 조화롭게 배합한 신제품 '5얼라이브(5alive)'를 출시했다. 주스 전문가와 함께 찾은 비율로 블렌딩했으며 당근즙에 상큼하고 달콤한 맛을 가진 과즙이 어우러져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스무디킹'도 당근과 케일을 각각딸기·사과·키위와 혼합한 '베지 스무디' 3종을 출시했다. 야채를 꺼리는 어린이들이나 기름진 식생활로 야채, 식이섬유 섭취가 부족한 성인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스타벅스도 '사과&당근', '케일&사과' 등 과일과 채소가 결합된 과채주스를 상품으로 선보이고 있다.

녹즙 업계에서도 과일과의 배합을 통해 녹즙을 맛있게 마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풀무원녹즙이 최근 선보인 '코코몽 키즈하이녹즙'은 유기농 케일즙에 파인애플·배·사과·그린키위·바나나·적포도 등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6가지 과일을 함께 넣은 제품으로 채소를 안 먹는 아이들도 맛있게 마실 수 있는 어린이 녹즙이다. 이 제품은 사과·배·딸기·파인애플 등 국내산 과일과 케일·양배추·브로콜리 같은 유기농 채소를 식물성 유산균으로 발효시켰다. /정영일기자

고시히카리 쌀로 만든 도시락 홈플러스는 24일 할인점 최초로 고시히카리 쌀을 적용한 'enjoy fresh' 도시락을 출시했다. 이번 선보이는 상품은 6찬 도시락(3500원)과 일품 정식 도시락(3900원) 2종이며, 전국 139개 점포와 익스프레스, 365플러스 편의점에서 판매된다. /홈플러스 제공

입맛과 영양 동시 충족… '보리' 활용 식·음료 열전

성인병·암 예방 성분 다량 함유 '인기'

우리가 흔히 쓰는 사자성어가운데 '오곡백과(五穀百果)'라는 말이 있다. 온갖 곡식과 모든 과일을 뜻하는 말이다. 이 가운데 오곡이란 쌀과 보리·조·콩·기장 등을 말한다. 이들 곡식 가운데 으뜸이라고 해서 동의보감에 '오곡지장(五穀之長)'이라는 별칭이 붙은 곡식이 바로 '보리'다.

과거 가난을 대표하는 곡식이었지만 요즘에는 쌀보다 귀한 대접을 받는다.

찬 성질을 지닌 보리는 예로부터 열을 식히고 기를 보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보리에는 성인병과 암 예방에 좋은 베타글루칸·식이섬유·비타민 B·기능성 아미노산 등이 다량 함유돼 있는 건강식품으로 꼽히고 있는 것이다.

최근 불볕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보리를 활용한 식·음료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장수 음료로 손꼽히는 일화의 '맥콜'(사진)은 100% 순수 국내산 유기농 보리를 사용해 특유의 진한 색상과 깊은 맛을 낸다. 또 세계 3대 광천수인 초정리 광천수를 원료로 사용하고 인산·캐러멜색소·카페인·합성착향료 등을 첨가하지 않았다.

웅진식품의 곡물 차 음료인 '하늘보리'도 깔끔하고 구수한 맛의 갈증해소 음료로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보리를 원료로 한 신제품도 눈에 띈다. 샘표의 차 전문 브랜드 순작(純作)은 무더위에 쉽게 지치는 아기의 건강을 고려한 '청정지역 무주산 아기전용 보리차'를 최근 출시했다. 생후 4~18개월 된 영아들을 위한 식수차로 통알곡만을 선별 사용해 유해한 이물질이나 찌꺼기 걱정 없이 깨끗한 보리차를 끓일 수 있다.

또 풀무원식품은 이달 초 국내산 보리와 강원도에서 재배한 生곤드레를 넣어 만든 '곤드레보리 캡밥'을 선보였다. /정영일기자 prms@

2014인천 펜타포트 음악축제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2014

9th

AUG 1-3 @송도 달빛축제공원 PENTA PARK / WWW.PENTAPORTROCK.COM

8.1 FRI	8.2 SAT	8.3 SUN

PENTAPORT STAGE

8.1 FRI	8.2 SAT	8.3 SUN
이승환	KASABIAN	TRAVIS
데이브레이크	IDIOTAPE	STARSAILOR
SUICIDAL TENDENCIES	BOYS LIKE GIRLS	불독맨션
피아	CRASH	로맨틱펀치
MAXÏMO PARK	ORANGE RANGE	킹스턴루디스카
	장미여관	스컬앤하하

DREAM STAGE

8.1 FRI	8.2 SAT	8.3 SUN
CROSSFAITH	THE HORRORS	장필순·조동희·오소영
THORNAPPLE	페퍼톤스	어반자카파
구남과여라이딩스텔라	THE INSPECTOR CLUZO	SCANDAL
LIZZY BORDEN	디어클라우드	해리빅버튼
피해의식	솔루션스	위아더나잇
DEMPAGUMI.inc	넘버원코리안	ACOLLECTIVE
	라이프앤타임	스몰오

MOONLIGHT STAGE

8.1 FRI	8.2 SAT	8.3 SUN
써드스톤	이지형	RUX
WANGEL	루디스텔로	노리스펙트포뷰티
HUGH KEICE	미미시스터즈	Fourbrothers
MY SKIN AGAINST YOUR SKIN	애쉬그레이	RED FLOWER

디자이너·바이어 "질적·양적 향상 절실"

<현장 르포> 13억짜리 행사 '패션코드 2014'가 남긴 것

아이돌 방문 첫날만 북적… 둘쨋날부터 한산 해외바이어 만남·계약 성사도 없어… 전시성

한류 디자이너 브랜드 발굴과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수주·전시회인 '패션코드 2014(Fashion KODE 2014)'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렸다. '문화와 패션'을 결합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선보인 신개념 패션문화 축제를 표방한 자리였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가 공동 주관한 이 축제는 내년 3월에 있을 2회차 공연을 포함 13억원의 예산이 투입 된다.

행사는 국내 톱 디자이너 브랜드를 포함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까지 국내·외 120개 이상의 패션 브랜드와 400여명의 국내·외 바이어들이 참가해 실질적인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축제에 앞서 지난 2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개최를 알리는 간담회에서 "이번 패션 축제에는 다른 국내 행사와 차별화된 K-POP·여성복·남성복·잡화·아동복 등 6가지 테마로 재미를 접목한 콘셉트 공간을 마련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전시를 만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 "한 디자이너 또는 브랜드마다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30회 이상의 바이어 미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패션코드? EXO코드!

축제 첫 날인 16일 '국민과 업계가 함께 하는 코드 퍼레이드(Kode Parade)'가 주제인 패션쇼에는 신용언 문화체육관광부 실장, 홍상표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이상봉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 회장과 디자이너들이 다문화 가족 자녀들과 함께 직접 런웨이를 펼쳤다. 특히 이번 행사의 홍보대사인 아이돌 그룹 EXO의 멤버도 함께 무대에 올라 행사장의 열기를 고조시켰다. 주최 측의 발표에 따르면 이날 방문객은 5000여명에 달했다.

그러나 현장을 방문한 한 방문객은 "패션쇼인지 프리마켓인지 콘서트인지 구분하기 힘들었다"며 "일반인들과 함께 한다는 취지는 알겠지만 현장에 들어가지도 못한 사람들이 많았고 EXO 팬들이 몰릴 것을 주최 측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 보였다"고 토로했다.

또다른 방문객은 "관계자들이 주인공이고 관람객은 들러리였다"며 "표를 구매한 사람도, 초대권을 들고 온 사람도 들어갈 수 없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패션코드2014' 전시장 외부 모습. 아래 사진은 마지막 날인 18일 한산한 행사장 내부 모습. /한국콘텐츠진흥원 제공·김학철기자

이날 현장에 바이어로 참석한 한 업계 관계자는 "열기가 뜨겁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분명 긍정적인 면이지만 아이돌 가수의 나이 어린 팬들이 이번 수주 전시회에 얼마나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올지는 생각해 볼 문제"라고 꼬집었다.

지난 18일, 축제 마지막 날 현장은 처참했다. 첫날 5000명이 넘는 방문객이 이곳을 찾았다는 말이 무색해 보일 정도였다. 한 현장 관계자는 "첫날에나 붐볐지 어제와 비슷한 수준의 방문객이 찾고 있다"고 말했다.

◆"네트워킹파티는 그냥 놀자판"

이날 만난 국내·외에서 편집숍을 운영 중인 한 바이어는 "바이어의 방문이 너무 없다. 특히 해외 진출을 도모하는 수주행사임에도 해외 바이어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 였다"며 "해외와 견줄만한 성공적인 패션 축제가 되려면 바이어 수를 더 늘려야 하고 특히 외국인 바이어가 매력을 느낄만한 브랜드가 더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른 바이어 관계자는 "브랜드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다. 대학생들이 교수와 함께 참가한 곳도 있고 명함이나 브랜드를 알릴만한 것 하나 없이 들어온 곳도 있다"고 의문을 표했다.

그는 이어 "어디든 그렇지만, 이번에도 역시 끼리끼리 문화가 여전했다"라며 "이미 서로 알고 있는 유명 디자이너·관계자·대형 바이어 등은 저들끼리만 놀고, 신생 브랜드나 규모는 작지만 국내 디자이너들의 해외 판로 길을 찾으려는 바이어들을 위한 지원은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주최 측은 이번 축제에 국내 패션업계에서 '특별' 요청한 해외 유수 바이어들이 대거 참석해 실질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 방편으로 가시적인 수주회 성과를 창출하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와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파티'를 기획했다는 것이다.

이에 한 바이어는 "놀자판, 그냥 클럽왔다고 생각하면 된다"며 "DJ파티 등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고 끼리끼리 모여 춤추고 술먹고 스트레스를 푸는 정도의 모임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자리에 참석한 외국 바이어나 외국 디자이너도 만나봤지만 일단 통역도 없고 말이 안 통하다보니 실질적인 네트워크 형성은 없었다"라고 잘라 말했다.

◆구색과 형식 맞추기에 급급

한편 이날 만난 론칭 1년을 맞은 신생 브랜드의 대표는 생각 외의 성과를 내 만족하지만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국내 페어에서 수주 유치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어서 사실 이번 행사에 전혀 기대를 하지 않고 참석했다. 동일 날짜에 겹치는 인디브랜드페어보다 부스비가 저렴하다는 것만 보고 왔는데 중국 쪽으로 계약을 따는 등 나름 성과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참가 브랜드들이 어떻게 선정됐는지 잘 모르지만 참석한 디자이너들의 공통된 말은 형평성에 신경 써 달라는 것이었다"라며 "우리는 바이어 미팅을 마련했다는 연락을 주최 측으로부터 한 차례도 못 받았고 대부분 디자이너들은 2~3번 정도 형식적인 만남이 다였다. 주최 측에서 홍보한 유명 바이어들은 어디서 누구와 만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불만을 전했다.

그는 또 "바이어 미팅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에 주최 측은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며 반문했다"며 "국내 페어가 다 그렇듯 형식과 보여주기에 치중한 것은 여기도 마찬가지란 생각이 들었다"고 꼬집었다.

전시장 구성에는 K-POP 섹션이 따로 구성돼 있었다.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를 소개하며 한류 열풍에 대한 기대를 이번 수주회에 반영하겠다는 의도였다. 그 곳에는 'SM엔터테인먼트'에서 나온 부스 하나가 다였다. 소속가수의 로고가 세겨진 양말이며 음반 등을 판매하는 곳이었다. K-POP이라고 따로 섹션을 구분한 것이 민망할 정도였다.

주관 측은 현재 이번 행사와 관련한 성과와 결과물 등이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주최·주관 측은 참가한 바이어와 디자이너, 일반 관객들의 목소리를 주의 깊게 들어야 할 것"이라며 "13억 예산을 허투루 쓰는 일이 없어야한다"고 전했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프로야구 올스타 '포카리스웨트' 부스 설치

동아오츠카, 푸짐한 경품 전달

동아오츠카(대표 이원희)가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개최된 2014 프로야구 올스타전에서 선수들을 응원하고 다양한 관객 프로모션을 실시했다.

먼저 회사는 지난 17일과 18일 이틀간 야구장에 설치된 스폰서존에 '포카리스웨트' 샘플링 부스를 설치해 입장객에게 포카리스웨트를 무료로 제공했다. 또 스윙 체험 이벤트 '포카리스웨트 홈런왕'을 통해 체험에 참여한 고객에게 다양한 선물을 증정했다.

특히 회사는 장내 전광판 퀴즈를 진행해 정답을 맞힌 15명에게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야구 입장권을 전달했다.

포카리스웨트는 올해로 15년째 프로야구 공식음료로 지정됐으며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도 공식 후원을 맡는다.

/황재용기자 hsoul38@

관광공사, 초등생 '산업체 탐방여행' 진행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하고 활성화 도모 겨냥

한국관광공사(사장 변추석)가 서해 3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을 초청해 오늘(21일)부터 2박 3일의 일정으로 '산업체 탐방여행'을 진행한다.

행사는 그동안 세월호 사고로 위축된 수학여행과 체험여행에서 소외된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유익한 학습여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관광공사는 산업체 탐방학습이라는 새로운 국내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그 수요를 창출해 산업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여행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전남 신안군의 팔금도·암태도·자은도 3개 섬지역의 초등학생 100명이며 이들은 '부산 LG 사이언스 홀' '르노 삼성자동차 공장' '광양 제철소' 등을 둘러보게 된다. 또 전문 강사 7명이 참여해 학생들의 안전한 여행을 책임진다.

/황재용기자

"도전으로 행복 찾는 음악쟁이"

밴드 어쿠스틱 블랑으로 돌아온 박기영

3인조 밴드 어쿠스틱 블랑으로 돌아온 박기영은 다양한 음악적 도전으로 행복을 찾는 음악쟁이다.

올해 데뷔 15년차인 박기영은 작은 체구지만 파워풀한 가창력을 인정받고 있다.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시작' '마지막 사랑' '블루스카이' '산책' 등의 히트곡을 냈다. 그러나 스페니시 기타리스트 이준호와 베이시스트 박영신으로 구성된 어쿠스틱 블랑에서 박기영은 파워보다 담백함이 묻어났다.

◆ 6년의 기다림

박기영의 음악을 기대하는 대중에게 어쿠스틱 블랑의 첫 번째 미니앨범 '어쿠스틱 블랑 파트원'은 다소 낯설다. 그러나 박기영은 6년 전부터 어쿠스틱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보였다.

"2008년 EBS '스페이스 공감' 1000회 특집에 출연할 당시 과거 히트곡을 어쿠스틱으로 편곡해 공개했어요. 예상보다 반응이 좋았죠. 공연으로만 끝나기엔 너무 아쉬움이 남아 그동안 사랑받았던 곡을 어쿠스틱으로 재해석해 베스트 앨범까지 발매했어요."

그러나 앨범과 공연, 스페인 산티아고에 다녀와 쓴 책과 임신, 출산을 겪으면서 어쿠스틱에 대한 열망은 더욱 커졌다.

"저는 '박기영=시작'이라는 틀을 깨고 싶어요. 계속 변하며 발전하는 가수가 되고 싶죠. 물론 시대가 원하는 음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늘 신곡이 기대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때문에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는 건 두렵지 않아요.(웃음)"

◆ 담백해진 앨범

박기영은 이번 앨범에 대해 "MSG없는 앨범"이라고 정의했다.

보컬 박기영과 기타 이준호, 베이스 박영신이 의기투합해 만든 어쿠스틱 블랑의 첫 번째 미니앨범에는 보너스 트랙을 포함해 총 7곡이 담겨있다. 이번 앨범은 전자음악이 포함되지 않았다. 기타와 베이스를 중심으로 젬베와 쉐이크, 우드 등으로 멜로디를 완성했다.

파워풀한 가창력보다 담백함 담아
"조용히 사색하며 듣기 좋은 음악"

그는 "심플하고 단순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비울 수 있는 앨범을 만들고 싶었다. 사운드도 비워내려고 노력했다.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이라며 "타이틀곡 '톡톡톡'은 한번의 연주로 만든 것 같지만 세번의 기타연주를 더빙해 멜로디를 만들었다. 더욱 단단해진 멜로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타이틀곡 '톡톡톡'은 고독한 현대인에게 위로를 건네고 있다. '톡톡톡'이란 말의 어감이 귀여우면서도 어딘지 슬픈 느낌이 있지만 고된 세상사에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준다. 네 번째 트랙의 '이야기'에도 우리 삶에 대한 담백하면서도 현실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다.

그는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이나 혼자 조용히 사색을 할 때 들으면 좋다"며 "공감가는 가사와 담백한 멜로디는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여섯 번째 앨범에 담긴 '나나'는 어쿠스틱 블랑 뮤지션들의 멋진 연주곡이다. 이 노래는 우아한 왈츠풍의 멜로디로 시작돼 트레몰로 주법의 기타 사운드가 귀를 사로잡는다.

기타리스트 이준호는 "요즘 기타나 우쿨렐레 등을 배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다음 앨범에는 누구나 함께 연주할 수 있는 곡을 담고 싶다"고 밝혔다.

◆ 공연장에서 만나고파

밴드 어쿠스틱 블랑은 음악방송보다 공연장에서 대중과 소통하길 원했다.

박기영은 "준호 오빠, 영신이와 작업을 시작하면서 공연하는 밴드를 만들자고 이야기했다. 음반과 라이브 두 가지만 생각했다"며 "8월 홍대 벨로주에서 콘서트를 시작한다. 조그만 공연을 시작으로 조금씩 늘려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에는 현재 음악방송의 시스템도 한몫했다. 이들이 출연할 수 있는 음악프로그램은 KBS2 '유희열의 스케치북'과 라디오 방송 정도에 불과하다. 음악 순위 프로그램은 아이돌이 장악하고 있다.

그는 "어쿠스틱 블랑의 음악은 공연장에서 들어야 한다는 공식(?)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음악을 할 때 즐겁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디자인/김아람

박영신

이준호

박기영

왼쪽부터 MBC 수목극 '운명처럼 널 사랑해'의 장혁·장나라, KBS2 수목극 '조선총잡이' 이준기·남상미, SBS 월화극 '유혹' 권상우·최지우. /MBC·KBS·SBS 제공

재회커플 '케미' 10년 지나도 살아있네…

장혁-장나라·이준기-남상미·권상우-최지우 관록에 신선함까지

재회 커플의 케미가 10여 년이 지나도 여전하다. 애당초 이들의 만남이 식상 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그러나 배우들의 성숙한 연기가 전작과 다른 새로운 설렘을 만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변함없는 코믹 연기로 그 시절 향수도 느끼게 한다.

◆ '운명인가 봐' 장혁·장나라

장혁과 장나라의 코믹 케미는 이번에도 통했다. 장혁은 MBC 수목극 '운명처럼 널 사랑해'(이하 '운널사')에서 능청스러운 연기로, 장나라는 주특기인 어수룩하고 자신감 없는 여성 캐릭터를 자연스럽게 소화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SBS 드라마 '명랑소녀 성공기' 이후 12년 만이다. 당시 작품은 최고 시청률 43%를 기록하며 신드롬을 일으켰다. '운널사'도 심상치 않다. 최근 미니시리즈의 경우 20%만 나와도 성공이라는 말이 있다.

'운널사'는 아직 한 자리수 시청률을 기록 하고 있지만 체감 반응이 뜨겁다. 지난 16일 방송은 시청률 9.1%(TNmS·전국 기준)로 전회보다 1.2%포인트 상승하며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고 방송 2주 만에 수목드라마 2위에 이름을 올렸다.

◆ '풋풋해진' 이준기·남상미

KBS2 수목극 '조선 총잡이'의 이준기와 남상미는 풋풋한 개화기 커플을 연기하고 있다. MBC 드라마 '개와 늑대의 시간'(2007)에서 첫사랑 커플로 출연해 애절한 사랑을 했다.

'조선 총잡이'에선 오히려 풋풋해졌다. 박윤강(이준기)은 복수를 위해 일본인 한조로 위장했고 정수인(남상미)은 박윤강과 똑같이 생긴 한조의 정체를 밝히려 한다. 숨겨야 하는 자와 밝히려는 자, 그 관계 속에서 이준기와 남상미는 한조와 정수인으로 티격태격하고 있다.

로맨틱 코미디 설정이 퓨전 사극의 재미를 더한다. 이준기는 지난달 제작발표회에서 "7년 전엔 둘 다 어려서 연기하기 바빴다"며 "지금은 오랜 연인처럼 편하다"고 남상미와의 연기 호흡을 설명했다.

◆ '섹시한 유혹' 권상우·최지우

권상우와 최지우는 섹시해졌다. 2003년 SBS 드라마 '천국의 계단'에서 첫사랑 커플로 죽음도 불사했다. SBS 월화극 '유혹'에선 어른들의 사랑을 담아낸다. 특히 최지우의 변신이 눈에 띈다. 청순가련의 대명사였던 그는 냉철한 골드미스를 연기한다. 의상도 화려해 도도한 섹시미를 보이고 있다.

전작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지난 15일 2회 방송은 시청률 8.3%(TNmS·전국 기준)를 기록했다. 전회보다 1.3% 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작품은 두 배우의 이름만으로도 무게가 있다. 그러나 아내가 있는 남편의 시간을 돈으로 사는 설정에서 이야기를 시작했고 '불륜을 미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동시간대 경쟁작이 구수한 트로트를 이용해 친숙한 가족애를 그리고 있다. 시청자가 '유혹'이 그리는 사랑을 납득하는 게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현아 섹시 매력 예고편 '후끈'

여성그룹 포미닛의 현아(사진)가 올 여름 여자 솔로 최강 섹시 매력을 예고했다.

28일 세 번째 미니앨범 '에이 토크'를 발매하는 현아는 타이틀곡 '빨개요' 티저 이미지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순백의 란제리 차림으로 침대에서 강렬한 눈빛을 드러내는가 하면 백옥같은 피부의 순수한 느낌과 도발적인 섹시함을 한꺼번에 발산했다.

'빨개요'는 현아의 건강한 섹시미를 한층 돋보이게 할 톡톡 튀는 느낌의 곡으로 신진 작곡가 서재우·빅싼초 콤비가 빚어낸 위트넘치는 멜로디에 현아의 독특한 매력이 조화를 이룬다.

'빨개요'는 2012년에 발매돼 현아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알렸던 '아이스크림'에 이어 1년 9개월만에 발표하는 노래로 올 여름 가요계를 또 한번 들썩이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아는 2010년 '체인지'로 처음 솔로 가수로 나서 '버블팝' '아이스크림' 등 히트곡을 발표하며 섹시 아이콘으로 성장해 왔다. /유순호기자 suno@

아이유·바이브 '8월의 섬데이'

내달 연세대 노천극장 합동공연

남성 듀오 바이브와 가수 아이유가 한 여름밤 야외 공연을 개최한다.

이들은 다음달 23~24일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8월의 섬데이'라는 이름으로 공연한다. 단독 콘서트로도 매진행렬을 이어온 바이브와 아이유는 합동 공연으로 또 한번 막강한 티켓 파워를 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빼어난 가창력을 보유한 윤민수와 인기 작곡가 이기도 한 류재현은 12년간 다져온 호흡을 이번 무대에서 펼쳐보일 예정이다. 바이브는 앞서 열린 '섬데이 콘서트' 시리즈에서 앙코르 공연까지 세 차례 모두 매진한 바 있다.

'좋은 날' '너랑 나' 등 여러 히트곡을 부르며 '국민여동생'으로 큰 인기를 모아온 아이유는 여름밤 야외 무대에서 달콤한 목소리로 관객을 사로잡는다. 최근 리메이크 앨범 '꽃갈피'로 성숙한 음악성도 보여주고 있어 이번 공연에 더 큰 기대를 모은다.

/유순호기자

아이유

바이브

비핸즈카드 제공(제품번호 : BH2137)

결혼 미루는 자녀 때문에 …
올해도 '축의금 품앗이'만 하다 끝?

주변 결혼식은 늘어나고, 결혼적령기 자녀는 느긋하고 속 타는 부모들 결혼 상담 부쩍 늘어

서울 강남구에 거주 중인 김경원씨(60세)는 요즘 걱정이 많다. 부쩍 많아진 결혼식에 축의금 지출은 늘어가는데, 정작 딸의 결혼 소식은 잠잠하기 때문. "3년 새 주변에 결혼식이 크게 늘었어요. 정작 우리 애는 느긋하지, 해는 넘어가지… 걱정이 크죠."

하미숙씨(56세 · 서초구)도 아들의 혼사에 마음이 쓰인다고 말한다. "싹싹한 며느리, 예쁜 손주 둔 친구들 볼 때마다 참 부럽죠. 내년도 봉투만 보내다가 지나버리면 어쩌나 싶고…"

여전히 미혼으로 남은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걱정스럽기만 하다. 소위 '축의금 품앗이' 문화로 인해 부모들은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라도 주변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을 의무처럼 여기곤 한다. 하지만 초혼 연령이 높아지고 자녀의 결혼이 늦어지면서 '올해도 축의금만 내다 끝나는 건 아닐까' 하며 걱정하는 부모들이 많다.

가연결혼정보㈜의 박미숙 이사는 최근 결혼 적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결혼 상담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말한다. "올해 들어, 자녀분들이 어서 짝을 찾길 바라는 부모님들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자녀가 좋은 짝을 만나 안정된 모습을 보고 싶은 부모들은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없다'며 결혼을 미루는 자녀를 위한 해결책으로 결혼정보회사를 찾고 있다.

하태경씨(61세 · 용산구)는 작년 초, 딸(28세)의 결혼 상담을 위해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다. 아버지만큼이나 남편에 대한 기대가 컸던 딸은 결혼정보회사에 적극적이었다고 한다. 그 결과 딸이 원하는 이성상과 부모가 원하는 조건을 갖춘 사윗감을 만나 딸은 지난 2월 결혼식을 올렸다.

하씨는 "딸 가진 부모 마음 다 똑같다.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았으면 했다.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던 이유도, 원하는 사윗감에 대해 솔직하게 터놓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에서였다. 지금은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사위를 뒀다"며 웃었다.

가연결혼정보
〈문의 : 080-586-5000〉

"결혼은 내가 원하는 상대와 해야죠"

대기업 연구원 서승필씨(30세)는 최근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다. 누구의 권유나 추천도 아닌, 본인의 결정이었다. "바쁘게 살다 보니 해가 바뀌고 계절도 바뀌었더라고요. 올해 안에 저도 제 짝과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습니다. 급하다고 아무나 만날 순 없고, 제가 원하는 상대를 찾고 싶었어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배우자를 찾는 미혼남녀들이 늘고 있다. 행복한 결혼은 사랑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건들이 충족될 때 가능하다는 믿음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 결혼정보회사 찾는 법, 따로 있다

하루빨리 짝을 찾고 싶은 마음에 결혼정보회사를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급한 마음에 아무 회사나 선택하는 것은 금물,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자.

공정위 표준약관 100% 준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준수 여부
회사의 규모와 공신력	서비스 품질, 사후 관리, 전문성 갖춘 인력, 시설 등
철저한 회원 신원인증	미혼, 학력, 재직 등 엄격한 회원 신원 인증 절차
개인정보 보안 · 관리	회원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안 및 관리
회원 매칭 시스템	전문적인 커플 · 매칭매니저에 의한 세심한 관리

20% 할인, 12개월 무이자 할부 이벤트 등 선보여…

가연 삼성카드 출시
- 행사기간 : 2014년 7월 1일(화) ~ 12월 31일(수)
- 가연결혼정보 성혼컨설팅 20% 현장할인
- 가연웨딩 웨딩패키지 200만원 이상 결제 시 50만원 결제일 할인(청구할인)

※카드 이용 전에 상품설명서, 홈페이지, 약관을 통해 자세한 이용조건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랭키닷컴 2011, 2012, 2013 기준〉

결혼정보분야 3년 연속 1위 기업
꾸준히 신뢰받는 이유는

가연은 결혼정보분야에서 3년 연속 1위(2011, 2012, 2013 랭키닷컴 기준)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 대상' 4년 연속 및 '대한민국 중소 · 중견기업 혁신대상' 3년 연속 수상,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2년 연속 수상, '2014 국가 브랜드 대상' 등 각종 상을 수상하며 높은 고객 만족도를 입증했다. 이렇듯 높은 고객만족도를 자랑하게 된 중심에는 가연이 개발한 독자적인 매칭서비스가 있다.

1차원적인 매칭에 의존했던 업계에서 꾸준히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가연만의 매칭 시스템인 GMS(Gayeon Matching System)를 기반으로 커플/매칭매니저 2명이 1명의 회원을 전담으로 관리하는 성혼 컨설팅 시스템을 마련하면서, ISO 9001, INNOBIZ, 벤처기업 인증 등을 통해 그 우수함을 입증받기도 했다. 또한 가연은 대기업, 공기업, 정부기관 등을 총망라한 제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수준 높은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휴사 미혼직원을 위한 결혼지원 서비스 및 '미팅파티'를 통해 만남의 장을 열고 있다. 서울 테헤란로에는 만남부터 결혼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17층 전관을

※랭키닷컴 – 랭키순위란? 최근 12주간 랭키 툴바 6만명 패널의 인터넷 사용정보를 자료로 User Session Visits 기준으로 집계한 순위입니다.

결혼 서비스에 특화 시킨 '가연타워'가 있다. 고객의 편의와 만족을 극대화하는 업계 최대규모의 단일 사옥은 가연의 '고객중심 경영철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이다.

가연결혼정보 〈문의 : 080-586-5000〉

"행복한 결혼, 가장 중요한 건 자신만의 인연을 찾는 일이죠"

결혼정보회사를 찾는 이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가연결혼정보㈜박영빈 팀장은 '행복한 결혼은 노력과 의지의 결과이며, 결혼정보회사도 노력의 주요한 일환'이라고 말한다.

◆결혼정보회사를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요즘은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부터 결혼적령기 자녀를 둔 부모님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결혼정보회사를 찾고 계세요. 그 이유는 배우자를 신중하게 선택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다는 바람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기 위해선 성격부터 가치관 등 다양한 기준들을 세워 배우자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도움을 얻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혼정보회사의 회원들은 어떤 분들인지?

일반 직장인부터 전문직, 공무원 등 결혼정보회사 역시 다양한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흔히 직업 좋고 연봉 높은 분들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찾는 만큼 꼭 그렇지만은 않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니까요.

▲ 가연결혼정보(주) 박영빈 팀장

◆결혼정보회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결혼정보회사의 존재 이유는 회원님께서 원하는, 그리고 회원님께 꼭 맞는 배우자를 찾아 인연을 맺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의 삶과 가정에 결혼을 통해 행복을 불어넣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갖고 있어요. 성혼 커플들을 볼 때마다 커플매니저로서 보람과 긍지를 느끼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혼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께 조언을 드린다면?

결혼도 결국에는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무리 전문적인 커플매니저가 도움을 드린다 해도 스스로가 준비가 되고 노력할 때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마음가짐만 굳건하시다면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충분히 아름다운 인연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연결혼정보
〈문의 : 080-586-5000〉

커플매니저와 무료상담하기

가연결혼정보㈜에서는 연중무휴 무료상담이 가능하다. 전화, 방문, 온라인 문의 등 고객의 편의에 따라 원하는 상담이 가능하며 전담 커플매니저가 지정되어 '맞춤 상담'을 제공한다. 한편 가연은 서울 본사와 동일한 직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인, 수원, 대전, 대구, 부산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무료상담전화
080-586-5000

"8월 한국공연 흥분되고 설렙니다"

영국의 전설적인 록밴드 퀸이 결성 43년 만에 한국 팬들 앞에서 공연한다. 다음달 14일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음악 페스티벌 '슈퍼소닉 2014'의 메인 무대를 장식한다. 퀸의 원년 멤버 4명 중 브라이언 메이(67·기타)와 로저 테일러(65·드럼)가 내한한다.

퀸은 1971년 결성해 보컬인 프레디 머큐리가 사망한 1991년까지 멤버 교체 없이 꾸준히 활동했고 '보헤미안 랩소디' '위 아 더 챔피언' '위 윌 록 유' 등 수 많은 히트곡을 남겼다. 1997년 존 디콘(63·베이스)이 은퇴한 이후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는 듯 했지만 2012년 런던올림픽 폐막식 공연에 등장하며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프레디 머큐리의 빈 자리는 미국 오디션 프로그램 '아메리칸 아이돌' 시즌 8 준우승자인 아담 램버트(32·보컬)가 대신한다. 램버트는 오디션 당시 퀸의 멤버들이 직접 반주한 '위 아 더 챔피언'을 부르며 인연을 맺었다. 2012년 6월부터 퀸의 투어에 합류했다.

내한을 앞두고 메이와 e메일 인터뷰를 진행했다.

브라이언 메이, 아담 램버트, 로저 테일러(왼쪽부터) /9ENT 제공

퀸, 첫 내한… 램버트, 머큐리 빈자리 채워

-투어 콘서트로 바쁜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나.

최근 북미에서 13회 공연을 마쳤다. 우리가 더 이상 35세가 아니라 일정이 약간 힘들기도 하다. 하지만 투어를 위해 건강에 유의하며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첫 내한공연을 하는 소감은.

머큐리와 디콘은 오래 전에 프로모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이번이 처음이라 매우 기대되고 흥분된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많은 소식을 들어왔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매우 특별하다. 일생의 기회이기에 매우 영광스럽고 감사하다.

-수십 년이 지나도 퀸의 음악이 사랑받는 이유는.

퀸은 누군가가 만든 밴드가 아니고 우리끼리 본능적으로 이끌려 결성된 그룹이다. 우리의 음악은 필연적으로 록 스타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매우 개인적인 것들이었다. 사람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희망, 꿈, 고통이 주제였기 때문에 감동을 줄 수 있었던 것 같다.

-아담 램버트를 보컬로 영입한 이유는.

아무도 우리에게 강요를 하지 않았고 우리가 보컬을 직접 찾아본 적이 없다. 수 많은 사람이 "램버트를 꼭 봐야 된다"는 연락을 해왔고 몇 번 같이 작업을 하다 자연스럽게 그의 특별한 재능을 발견했다. 작업을 하고 투어를 하게 된 것은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램버트와 우리 밴드의 호흡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잘 맞다.

아담 램버트와 브라이언 메이. /9ENT 제공

-프레디 머큐리의 부재는 여전히 팬들에게 아쉬움을 준다.

머큐리와 나는 가족과 같이 매우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그의 부재는 마치 형제를 잃은 것과 같았다. 우리는 화석이 아닌 살아있고 계속 진화하기 때문에 머큐리가 나와 그리고 대중과 함께 있다고 생각한다.

-수 많은 명곡 중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한국에서도 들려줄 수 있는 곡은.

머큐리와 마지막으로 작업한 게 '더 쇼 머스트 고 온'이다. 인생에서 가장 즐겼던 순간을 대표하는 곡이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한여름 환상 '워터 라이브쇼'

이승철 서울 공연 1만4000팬 열광

가수 이승철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한여름 열대야를 날린 환상의 라이브 쇼를 선사했다.

이승철은 18~19일 서울 용산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여름 투어 '나이야가라' 공연을 했다. 엠넷 '슈퍼스타K' 심사위원으로 타고난 가창력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그는 '라이브 황제'의 절대 능력을 여실히 보여줬다.

'마이 러브' '잊었니' '마지막 콘서트' '긴하루' '이 순간을 언제까지나' 등 숱한 히트곡을 무대 곳곳을 뛰어다니면서도 한치 흐트러짐 없는 음정으로 불렀다. 또 '인연' '그 사람' 등 화제의 OST를 피아노 반주에만 맞춰 부르며 보컬의 매력을 극대화 했다. 김수철의 '나도야 간다'를 '나이야가라'로 개사해 불렀고, '해변으로 가요' '제주도의 푸른밤' 등으로 여름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이날 공연에서 관객을 가장 흥분시킨 것은 여름 투어에 맞춘 물펀치 이벤트였다. 지난해 '비치보이즈' 투어 서울 공연 당시 비가 온 날과 오지 않은 날 중 비 온 날 공연을 본 관객들이 더 즐거워했던 점에 착안했다.

미리 제공받은 비옷을 입은 관객들은 공연 중간중간 쏟아지는 물펀치를 맞으며 마치 물놀이 공원에 온 듯한 환호를 지르며 공연을 만끽했다.

이승철은 '나이야가라' 투어를 여름 브랜드 공연으로 특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앞서 울산과 수원에서 공연했고, 서울에서만 이틀간 1만4000명을 동원했다.

/유순호기자

펜타포트 '착한가격' 록 팬과 '의리'

막강 라인업·최저가 티켓 원조 록페 자존심

'착한티켓'의 대명사 인천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이하 펜타포트)이 '의리티켓'으로 돌아왔다.

페스티벌간의 과도한 섭외 경쟁과 출연료 상승이 티켓 가격 상승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펜타포트는 올해도 예년과 같은 수준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록 팬들과 의리를 지켰다.

다음달 1~3일 인천 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서 열리는 펜타포트에 출연하는 뮤지션은 모두 100여 팀. 이들의 모든 무대를 볼 수 있는 3일권의 정가가 18만7000원이다. 정상급 해외 가수의 단독 내한공연이나 오케스트라 공연보다 저렴한 가격이다. 현재 여름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록 페스티벌 중 가장 저렴한 가격이다.

여기에 조기예매할인, 펜타마니아 15~20% 할인, 인천시민과 대학생·군인을 대상으로 한 20% 할인 등 다양한 할인정책도 마련했다.

올해는 혼자만의 차별화된 여유를 즐기기 원하는 관객을 위해 최초로 VIP 티켓 시스템을 도입했다. VIP 전용 라운지와 흡연구역, 물품보관소, 휴대전화 무료충전, 전용화장실, 맥주 할인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가격은 1일권 15만원, 3일권 25만원이다.

또 펜타포트는 관객 편의를 위해 공식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했다. 어플리케이션은 출연 뮤지션 라인업, 공연 시간표, 새 소식, 뮤지션별 음악과 뮤직비디오 등을 제공한다.

9회째를 맞은 올해 펜타포트에는 2014년 영국 글라스톤베리 페스티벌의 헤드라이너이자 2000년대 브릿팝계 최강 밴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카사비안이 새 앨범과 함께 6년 만에 내한한다. 2008년 펜타포트로 처음 국내 팬들과 만난 브릿팝의 3대 뮤지션인 트래비스가 6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 또 이승환이 국내 뮤지션으로는 유일하게 헤드라이너로 나선다.

/유순호기자

조선시대서 뭉친 1000만 감독·배우

이준익·송강호 '사도'로 강렬한 만남… 젊은 피 유아인 가세

1000만감독과 배우, 그리고 젊은 피가 가세한 대작 사극영화가 화려한 첫 출발을 알렸다.

이준익 감독의 신작이자 송강호, 유아인, 문근영의 캐스팅으로 화제가 된 영화 '사도'가 지난 8일 전북 남원에서 크랭크인했다. '사도'는 아버지에 의해 뒤주에 갇혀 8일 만에 죽음을 맞이한 사도세자를 재조명해 영조와 사도세자, 그리고 정조에 이르기까지 조선왕조 3대에 걸친 비극을 그린 영화다.

지난 8일의 첫 촬영은 타고난 영민함으로 아버지 영조를 포함해 모든 중신들을 경탄하게 만드는 어린 사도의 모습을 담았다.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는 두 사람의 운명과 상반되는 과거의 즐거운 한 때를 그리는 장면이었다.

지난해 '설국열차' '관상' '변호인'으로 3000만 관객을 사로잡은 배우 송강호는 '사도'에서 역경을 뚫고 왕위에 오른 사도세자의 아버지 영조를 연기한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강인함 뒤에 인간적인 결함을 지닌 다층적인 매력의 인물이다. 드라마 '밀회'로 사랑받은 유아인은 비운의 죽음을 맞이하는 사도세자로 분한다.

송강호는 "나를 떨리게 한 작품이다. 중압감도 상당했다"며 "영조라는 벅찬 배역을 맡아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을 연기를 통해 경험하고 있다.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첫 촬영을 마친 소감을 전했다.

유아인은 "캐스팅 이후 내내 기다리고 기대했던 작품이다. 작품에 대한 확신과 열망이 대단했기에 아주 감격적"이라고 밝혔다.

송강호(왼쪽)와 유아인(오른쪽)이 '사도' 첫 촬영에서 진지한 자세로 대본 연습을 하고 있다.

'사도'는 이준익 감독이 '왕의 남자' 이후 오랫동안 고민한 소재였다. 지난해 12월 단숨에 시나리오를 쓰면서 본격적인 제작에 들어갔다.

이준익 감독은 "역사 속 인물은 온전히 하나로 존재할 수 없다. 아들 사도세자를 설명하는데 아버지 영조가 빠질 수 없고, 영조를 이해하는 데도 아들 사도를 빼놓을 수 없다"며 "그 동안 역사 속 비운의 인물로 그려진 사도세자를 주체로 아버지 영조에서 그의 아들 정조에 이르는 56년의 역사를 담아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히게 된 인과관계에 접근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사도'는 내년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신의 한 수' 흥행 해외로…

300만 돌파… 북미·아시아서도 개봉

정우성 주연의 액션영화 '신의 한 수'(감독 조범구)가 개봉 17일 만에 전국 300만 관객을 돌파했다. 해외 개봉까지 확정하며 흥행 기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20일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입장권 통합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신의 한 수'는 개봉 17일째인 지난 19일까지 총 301만6432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트랜스포머: 사라진 시대', '혹성탈출: 반격의 서막' 등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공세 속에서도 '신의 한 수'는 쾌조의 흥행을 보이며 박스오피스 상위권을 지키고 있다.

해외 시장의 반응도 뜨겁다. 오는 25일에는 북미 지역에 개봉하며 중국, 대만, 태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도 올 가을 중 개봉을 준비하고 있다. 다음달 27일부터 9월21일까지 열리는 독일의 판타지 필름페스트에도 초청되는 등 유럽 영화제의 러브콜도 잇따르고 있다.

'신의 한 수'는 내기 바둑판에서 펼쳐지는 바둑꾼들의 대결을 그린 영화. 정우성, 이범수, 안성기 김인권, 이시영, 안길강, 최진혁 등이 출연하며 지난 3일 개봉했다.

/장병호기자

김서형 동양의 美로 스페인 매료

'봄' 연기력 호평 해외영화 러브콜

배우 김서형이 영화 '봄'(감독 조근현)으로 2014년 마드리드 국제영화제에서 기립박수와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았다.

마드리드 국제영화제는 작품성이 뛰어난 세계 영화들을 소개하는 행사다. '봄'은 올해 영화제에서 최우수 제작자상, 최우수 외국어영화상, 최우수 여우주연상(외국어영화 부문) 등 3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됐다.

지난 17일(현지시간) 열린 공식 상영에는 조근현 감독과 제작자 신양중 대표, 주연 배우 김서형이 참석했다. 영화 상영 후 관객들은 엔딩 크레디트가 올라가자 기립박수를 치며 영화에 대한 호평을 보냈다.

영화인들도 찬사를 보냈다. 중국 영화사 에이트루필름 대표 허진은 김서형의 연기에 매료돼 왕이 감독의 차기작 '하늘로 가는 길'의 시나리오를 건네며 캐스팅 제안을 했다. 배우 겸 제작자 다니엘 볼드윈은 한복을 입은 김서형을 만나 "한복은 동양의 아름다움을 한데 모았다. 감동적"이라고 극찬했다.

'봄'은 한국전쟁 이후 1969년, 월남전을 배경으로 생애 마지막 모델을 만난 천재 조각가에게 찾아온 진정한 아름다움과 사랑을 그린 영화. 김서형은 남편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헌신하는 아내 정숙을 연기했다. 지난 1월 산타바바라 국제영화제 초청을 시작으로 아리조나 국제영화제, 밀라노국제영화제, 달라스 아시안 영화제 등 해외에 먼저 소개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국내 개봉은 올해 하반기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송은채 섹시 코미디로 신고식

개명 후 첫 작품 '레쓰링' 출연

배우 강은비가 송은채(사진)로 개명 이후 첫 작품인 '레쓰링'(감독 김호준)으로 올 여름 극장가를 찾는다.

'레쓰링'은 여자와의 관계를 통해 예술적 영감을 얻는 괴짜 교수 해주(최성국)가 진짜 사랑을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섹시 코미디 영화다.

송은채는 '몽정기2'에서 강은비라는 이름으로 호기심 가득한 발랄한 여고생 오성은을 연기했다. '레쓰링'에서는 사랑과 성에 있어 솔직하고 당당하게 표현할 줄 아는 여대생 은희 역을 맡았다.

송은채는 "시나리오가 정말 재미있었다. 약간의 노출이 있는 연기에 도전해야 했지만 재미있게 촬영했다"고 개명 후 첫 작품으로 '레쓰링'을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해서는 "솔직하고 당돌한 캐릭터다. 좋으면 다가가서 만나고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하는 인물"이라며 "나도 어렸을 때 그렇게 솔직했다면 더 예쁜 연애를 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영화 '레쓰링'은 다음달 개봉한다.

/장병호기자

보르도의 반란, 소테른 귀부와인

프랑스 보르도는 부르고뉴와 함께 값비싼 레드와인이 생산되는 곳이다. 떼루아(포도가 자라는 자연환경을 통칭하는 용어)로 봐도 레드와인에 적합하다.

그래서 이곳의 화이트와인은 대접받지 못한다. 화이트와인 산지가 보르도라고 하면 구매의 손길조차 주지 않는다.

그런 보르도에도 예외가 있다. 바로 스위트 귀부(Noble rot)와인의 명산지 소테른이다. 소테른 와인은 귀부 현상으로 말라 비틀어진 포도를 손으로 직접 따 만든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귀부는 포도 과육에 피해를 주지 않는 곰팡이(Botrytis Cinerea)로 인해 만들어진 현상이다. 그래서 '귀하다'는 의미의 '귀'자를 붙인다. 이 와인은 헝가리의 토카이, 독일의 트로켄베렌아우스레제와 더불어 세계 3대 귀부와인에 속한다. 그리고 소테른의 특1등급 와인 샤토 디켐은 마니아라면 꿈에서라도 마시고 싶은 와인이다.

소테른은 점토질과 석회석이 적절히 뒤섞여 화이트 품종이 자라기에 적합한 토양과 지형이다. 가론강의 영향을 받아 가을철에는 안개가 많이 끼기 때문에 곰팡이가 피어난다. 이 곰팡이는 새벽에는 포도껍질 밖으로 나와 이슬을 먹고 한낮 뜨거운 태양으로 대기가 마르면 포도껍질 안으로 들어가 포도 과육의 수분을 섭취한다. 그래서 포도알이 말라가고 반대로 당도는 높아진다.

처음에는 곰팡이가 피기 전에 수확해 드라이한 화이트와인을 만들었다. 그런데 샤토 디켐의 소유주 뤼 살루스 백작이 러시아로 출장가 수확을 하지 못해 모든 포도가 바짝 말랐다. 버리기 아까와 시험삼아 만들었는데 대박이 났다는 게 귀부와인의 유래다.

소테른 귀부와인은 세미용 소비뇽블랑 뮈스카데 등 세가지 품종으로 만드는데 세미용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주품종이다. 소비뇽블랑은 신맛을 가미해 균형을 맞추어 주는 역할을 한다.

귀부와인은 황금색이며 엄청나게 달다. 곰팡이의 영향을 받아 벌꿀과 꽃향이 강하다. 거기에 블랜딩된 소비뇽블랑의 산미가 받쳐준다. 워낙 소출량이 적어 가격은 엄청 비싸다. 여름철 시원하게 냉장해 열대 과일과 함께 마시면 제격이다. /mcho@metroseoul.co.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2	7	1						
	3						6	
9						7	2	3
8					3			
	1		5		7		8	
			8					9
6	4	9						7
	5						4	
						8	3	5

6				4	5		1	
8			9					5
		7					4	
				9	6			
1				8				2
			7	3				
	2					7		
9					1			8
	8		2	6				9

스도쿠 정답

2	7	1	9	3	8	5	6	4
5	3	4	7	2	9	1	6	8
9	8	6	4	5	1	7	2	3
8	9	5	2	6	3	4	7	1
4	1	3	5	6	7	9	8	2
7	6	2	8	1	4	3	5	9
6	4	9	3	8	5	2	1	7
3	5	8	1	7	2	9	4	6
1	2	7	9	4	6	8	3	5

6	9	2	3	4	5	8	1	7
8	4	3	9	1	7	6	2	5
5	1	7	6	2	8	9	4	3
2	3	8	1	9	6	5	7	4
1	7	6	5	8	4	3	9	2
4	5	9	7	3	2	1	8	6
3	2	4	8	5	9	7	6	1
9	6	5	4	7	1	2	3	8
7	8	1	2	6	3	4	5	9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리미티드'
(마이클 리오스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비영리재단 홍보 일 계속할 수 있을까
노후 대비 되고 자기실현 가능해요

배두산산 55년 11월 20일 양력 아침

Q 저는 집에서 손자를 돌보고 있었는데 아이도 다 커서 이제는 시간이 남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아름CS라는 비영리 재단에서 홍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례 문화를 올바르게 바꾸고 자손들이나 일가친척 친지 친구에게 도움을 주는 가치가 있는 일인데 사람들에게 알려 주고 있지만 너무나 좋은 것이 되서 그런지 잘 동참을 안 합니다. 제가 언변이 없어서 인지 다단계도 아니고 물건 파는 일도 아니고 오직 홍보만 하여 4대보 험을 받는 정식직원이 되어 평생 죽을 때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곳인데 제가 노후를 의지 할 수 있는 곳이 될는지요.

A 귀하는 자연물상론으로 보면 을목(乙木)사주로 '바위틈을 뚫고 자라는 화초'와 같은데 추운 동짓달에 태어났지만 통토(凍土)에서도 뿌리를 내리며 뜨거운 오뉴월(5~6月)에도 견디므로 속으로는 대단히 이성적이며 강인한 기질을 품고 있습니다. 금기(金氣)를 띠어 권위적이며 법을 잘 준수 하고 윤리도덕심도 강한데 사업 운은 없으므로 직장이나 관계통의 일을 하거나 젊은 날 좋은 직장은 다녔었다고 봅니다. 운의 흐름이 보좌를 하고 있어서 일상적인 생활을 해오는 데는 스트레스나 고통을 별로 크게 느끼지 않고 살아왔을 것인데 단점으로 항상 남에게는 자신이 어려움에 있다는 말을 습관 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자기가 옳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인데 세상의 모든 일이나 상대적인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게 돼 있는데 그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서 스스로 불행을 만들고 그 불행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아닐까요.

지난 2013년부터 계속해서 2018년까지는 자의든 타의든 직업의 변동이 있게 됩니다. 재단에 들어가서 일을 하며 홍보하는 것은 귀하의 성미나 경험을 견주어보면 잘 선택한 직장입니다. 을목(乙木)화초가 운에서 포태법상 관대, 록, 왕(冠帶, 祿, 旺)지로 가고 있으므로 어떠한 다른 직업보다 성공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감이 있었으니 계속 유대감을 갖도록 하세요. 기타 주식회사처럼 이익보다는 홍보재단이라는 것을 특이점으로 하시면서 평생 일을 할 수 있는 곳이며 복을 베푸는 일이 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일을 하시면 귀하의 노후 대비가 되고 자기실현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7월 21일 (음 6월 25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48년생 생각 바꾸면 할 일 많다. **60년생** 한겨울에 여름 옷 입는 있는 격~. **72년생** 예상했던 일은 현실로 된다. **84년생** 장애물 제거한 뒤 대사 실행할 것.

49년생 건강 원하면 젊은이 흉내도 내보라. **61년생** 물밑접촉은 잃는 게 많다. **73년생** 매사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말라. **85년생** 최선을 다하면 없던 길도 생긴다.

50년생 자녀 덕에 웃는다. **62년생** 고난 있어도 돈에 무릎 꿇지 않도록~. **74년생** 동남쪽에 행운 부르는 사람 만난다. **86년생** 사랑은 한 번에 끝나지 않는 법~.

51년생 잔소리 할 땐 타이밍 중요~. **63년생** 작은 일로 의욕이 되살아난다. **75년생** 나와 다르면 적이란 생각 버려라. **87년생** 발표나 제안을 하면 주목 받는다.

52년생 뜻밖에 위안거리 생긴다. **64년생** 앞에 나서지 말고 뒤에서 후원하라. **76년생** 늙은 사자가 급소를 아는 격이다. **88년생** 말썽 소지 있는 곳에 어슬렁거리지 말라.

53년생 샛길로 세지 않도록 조심~. **65년생** 욕심을 부리면 악몽 시작된다. **77년생** 내 것이 아니면 눈길도 주지 말라. **89년생** 통하는 벗과 한잔이 피로 씻게 한다.

42년생 참고 기다리면 때가 온다. **54년생** 뜻밖의 공돈 생기니 기대하라. **66년생** 사소한 방심이 뼈아픈 실책 부른다. **78년생** 무슨 일이든 빛과 그림자가 있는 법~.

43년생 결정된 일 보이콧 말라. **55년생** 꼬였던 일은 하나씩 풀린다. **67년생** 욕심이 지나친 사람과는 한배 타지 말라. **79년생** 이랬다 저랬다는 하는 상사가 얄밉구나.

44년생 밖으로 나가면 입이 즐겁다. **56년생** 철없는 자녀 바라보니 한숨만~. **68년생** 새 일은 정당성 확보부터 하라. **80년생** 야심을 키울 일감이 주어진다.

45년생 배우자 일에 관심 가져라. **57년생** 생각이 많으면 찾아온 기회 놓친다. **69년생** 오전에 고전하나 오후부터는 술술~. **81년생** 쭉정이 정보가지고 춤추는 격이다.

46년생 자녀가 희소식 선물한다. **58년생** 깐죽거리는 사람은 무시할 것. **70년생** 할 말은 당당히 다 하는 게 좋다. **82년생** 두 가지 행운을 놓고 행복한 저울질~.

47년생 아픈 기억은 빨리 지울수록 이익~. **59년생** 일의 성패는 참을성에 달렸다. **71년생** 약자는 노력으로 능력 최대화 하라. **83년생** 깐깐한 상사 때문에 힘든 하루~.

'10승' 류현진 22일 후반기 첫 등판

피츠버그 상대 에딘손 볼케스와 맞대결… 컨디션 쾌조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 투수 류현진(27·사진)이 후반기 첫 승 사냥에 나선다. 상대는 류현진에게 메이저리그 진출 첫 승을 안겨줬던 피츠버그 파이리츠다.

20일 미국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류현진은 22일 오전 8시5분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PNC 파크에서 열리는 피츠버그 파이리츠와의 원정경기에 선발 등판한다. LA 다저스와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3연전 중 첫 경기다.

류현진은 지난해 4월8일 다저스타디움에서 피츠버그를 상대로 메이저리그 첫 승을 거뒀다. 당시 류현진은 두 번째로 메이저리그 선발로 등판해 6⅓이닝 동안 3피안타 2실점으로 피츠버그 타선을 막았다.

지난달 1일에도 다저스타디움에서 피츠버그를 다시 만났다. 6이닝 동안 10피안타 무사4구, 4탈삼진으로 2실점하며 팀의 12-2 대승을 이끌었다. 전반기 18경기에서 10승5패 평균자책점 3.44를 기록한 류현진은 후반기에도 피츠버그와의 경기를 발판 삼아 순항에 나설 계획이다.

피츠버그의 선발투수로는 지난해 다저스에서 류현진과 한솥밥을 먹었던 에딘손 볼케스가 등판한다.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인 볼케스는 전반기 동안 8승6패 평균자책점 3.65의 성적을 기록했다. 류현진에 비해 무게감은 떨어지나 최근 4연승을 달리며 상승세를 타고 있어 경계가 필요하다.

류현진도 이전 경기인 지난 13일 샌디에이고전에서 6이닝 2피안타 무자책점 호투로 10승째를 거뒀다. 이후 열흘 가까이 휴식을 취하며 컨디션을 회복한 상황이다.

주의해야 할 타자는 피츠버그에서 유일하게 3할 타율(0.321)을 기록 중인 앤드루 맥커친이다. 올 시즌 17개 홈런을 때렸으며 지난해 4월 8일 경기에서 류현진을 상대로 2점 홈런을 치기도 했다. 지난달 1일 경기에서 류현진에게서 2루타를 뽑아낸 조시 해리슨은 5홈런 타율 0.296, 조르디 머서는 6홈런 타율 0.250을 기록하고 있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류현진이 후반기에 78⅓ 이닝을 던져 5승을 거두고 탈삼진 68개, 평균자책점 3.32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찬호가 지난 2000년에 세운 메이저리그 한국인 투수 최고 성적 18승10패를 넘어설 수 있을 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유소연 마라톤클래식 2R 3위

한국선수 올 시즌 LPGA 두 번째 우승 노려

유소연(24·하나금융그룹·사진)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마라톤 클래식에서 우승에 바짝 다가섰다.

유소연은 20일 미국 오하이오주 실베이니아의 하이랜드 메도우골프클럽(파71·6512야드)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버디 4개에 보기 1개를 묶어 3언더파 68타를 쳤다. 중간합계 10언더파 203타로 공동 선두 로라 디아즈(미국)와 리-안 페이스(남아프리카공화국·이상 11언더파 202타)에 1타 뒤진 공동 3위를 기록했다.

전반에 타수를 줄이지 못하던 유소연은 후반 15번홀부터 3개홀 연속 버디를 잡으며 상승세를 보였다.

유소연은 이 대회가 제이미 파 톨리도 클래식이라는 이름으로 열렸던 2012년 우승한 바 있다. 대회 두 번째 우승과 함께 매뉴라이프 LPGA 파이낸셜 클래식 정상에 오른 박인비(26·KB금융그룹)에 이어 올 시즌 한국 국적 선수로는 두 번째 우승을 노린다.

2라운드까지 공동 2위였던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17)는 버디 3개, 보기 2개로 중간합계 9언더파 204타를 기록하며 5위로 떨어졌다. /유순호기자 suno@

박인비 생애 첫 홀인원

KLPGA 제주삼다수 마스터스… 우승은 윤채영

박인비(26·KB금융그룹·사진)가 안방에서 데뷔 첫 홀인원을 기록했다.

박인비는 20일 제주 오라컨트리클럽 동·서코스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제주삼다수 마스터스 마지막날 3라운드 경기 중 3번홀(파3·175야드)에서 홀인원을 낚았다. 국내·외 공식 대회에서 박인비가 홀인원을 기록하기는 처음이다.

경기 후 박인비는 "경기 시작할 때는 카메라가 많이 있었는데 마침 다들 안 계시던 3번 홀에서 홀인원이 나왔다. 상품도 걸려 있지 않더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그는 최종합계10언더파 206타를 기록, 공동 4위로 이번 대회를 마쳤다.

한편 '미녀 골퍼' 윤채영(27·한화)이 최종합계 11언더파 205타로 김해림(25·하이마트), 장수연(20·롯데마트)과 동타를 이룬 뒤 연장전에서 승리해 9년 만에 첫 우승을 차지했다. /유순호기자

브라질 월드컵 최악의 선수는?

호날두·카시야스 등 '워스트 11' 불명예

브라질 언론이 자국에서 열린 월드컵 최악의 멤버를 뽑았다.

일간지 글로보에스포르테는 최근 '2014 브라질 월드컵' 워스트 11을 선정했다. 실망스러운 성적을 낸 자국 브라질이 최다 4명을 배출했다. 루이스 펠리페 스콜라리 감독을 비롯해 포워드 프레드(플루미넨세), 미드필더 파울리뉴(토트넘), 수비수 다니 알베스(바르셀로나) 등이다.

브라질은 자국 대회에서 통산 6번째 우승을 노렸지만 4위에 머물렀다. 특히 독일과 4강전 1-7, 역사에 남을 참패를 안은 데 이어 네덜란드와 3·4위 결정전에서도 0-3으로 완패했다. 에이스 네이마르(바르셀로나)의 부상과 주장이자 수비수 티아고 실바(파리 생제르맹)의 경고누적 등 변수가 있었다고는 하나 자국 언론의 매서운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여기에 몰락한 디펜딩 챔피언 스페인도 역시 4명을 냈다. 골키퍼 이케르 카시야스를 비롯해 미드필더 사비 알론소(이상 레알 마드리드), 수비수 제라르 피케, 조르디 알바(이상 바르셀로나) 등이다. 스페인은 B조 조별리그에서 네덜란드에 1-5 참패, 칠레에 0-2 완패를 안으며 16강에서 탈락했다.

세계 최고 공격수로 꼽히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사진)도 최악의 공격수 부문에 포함됐다. 유럽 예선 맹활약으로 포르투갈을 월드컵 본선으로 이끈 호날두는 조별리그에서 1골 1도움을 올렸으나 명성에 미치지 못했고, 팀도 16강 진출에 실패했다. /양성운기자 ysw@

레버쿠젠 류승우 페널티킥 유도

한국 축구 유망주 류승우(21·사진)가 독일 프로축구 레버쿠젠의 프리시즌 경기에서 돋보이는 활약을 했다.

류승우는 20일 오스트리아 노이마르크트 암 발레르제의 노이마르크트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레버쿠젠과 마르세유(프랑스)의 친선전에 후반 교체 투입돼 그라운드를 밟았다. 류승우는 후반 24분 페널티 박스 내에서 달려들다 넘어지며 페널티킥을 얻었다. 그러나 키커로 나선 로베르토 힐베르트가 이를 골로 연결시키지 못했다.

류승우는 지난 13일 리어스SK(벨기에)와의 친선전에서 골을 터뜨리는 등 팀 내에서 서서히 존재감을 높여가고 있다.

류승우는 최근 미국 스포츠 전문매체인 ESPN이 꼽은 '2018 러시아월드컵 유망주 10인'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같은 팀 소속이자 주전 공격수인 손흥민은 18일 레버쿠젠 훈련에 합류한지 하루 만인 이날 경기에 나섰다. 후반 24분 곤잘로 카스트로와 교체 투입된 손흥민은 20여 분간 뛰었지만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다.

/유순호기자

프로축구 전적 20일

포항	2	0	부산

△ 득점 = 강수일③(후13분) 신광훈②(후27분·PK·이상 포항)

전북	6	0	상주

△ 득점 = 이동국⑦(전17분) 한교원④(후19분) 이승기①(후20분) 카이오④⑤(후34분·후44분) 레오나르도(후40분·이상 전북)

프로배구 전적 20일

대한항공	1	3	LIG손해보험
현대건설	3	1	KGC인삼공사
한국전력	0	3	OK저축은행